

세계 금융시장 뒤흔든 ‘중형다 쇼크’ 오늘 분수령

8350만 달러 채권이자 지급해야
형다 “일부만 지급” 투자자 불안
日 등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
美 FOMC도 열려...시장 영향 촉각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중국 형다그룹 쇼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중 하나인 형다그룹이 파산해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일으킬 지 시장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형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놓고 23일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다. ▶관련기사 3면

22일 아시아증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증시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토픽스지수는 1.02% 각각 하락했다.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2.03% 급락했다.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이날 문을 연 중국증시 CSI300지수는 0.7% 떨어졌다. 홍콩증시는 휴장했다.

첫 번째 시험대는 23일이다. 형다는 이날 예정된 2022년 3월 만기 5년물 채권에 대한 8350만 달러(약 988억 원) 어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9일엔 다른 채권과 관련한 이자 475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형다가 이들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자를 결제하지 못하면 두 채권 모두 디폴트가 된다.

시장은 디폴트 위기에 놓인 형다와 관련한 소식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20일 형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은 초토화했다. 홍콩증시는 3% 이상 급락했고 미국증시 나스닥지수도 2% 이상 빠졌다. 21일에는 중국 정부가 형다의 붕괴를 방지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았다.

형다도 이를 의식해 22일 채권 일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형다는 “선전증시에서 거래된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를 23일 정확한 시간에 지급할 것”이라며 “해당 채권 문제는 이미 비공개 협상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레피니티브는 해당 이자 규모를 3588만 달러로 추산했다. 다만 형다는 같은 날 만기인 8350만 달러 이자와 다른 역외 채권 이자 지급에 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형다가 채권 이자 지급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형다의 무질서한 디폴트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입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형다가 ‘리먼 모멘트’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리먼 모멘트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것에서 나온 용어로, 시장에서 형다의 붕괴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도 23일 공개된다.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FOMC를 통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지 주목된다. 로이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후 기자회견에서 형다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모여 한반도 전쟁종료 함께 선언하자” 마지막 UN 연설서 ‘종전선언’ 다시 꺼낸 文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바 있지만, 선언 주체에 대해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

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등 도발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韓 가계부채 증가폭 세계 2위

GDP 대비 비중은 6위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과 수준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 증가율 역시 올 들어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머물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만 허리띠를 조인 모양새다.

22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전 분기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104.9%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비교 가능한 43개국 중 2위에 오른 것이다. 뉴질랜드(1.6%p)가 1위를, 스위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각각 1.4%p)이 공동 3위를 보였다. 작년 4분기엔 2.7%포인트 늘어 증가율 1위에 올라선

바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9%로 세계 6위에 올랐다. 작년 말 7위에서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 계단 더 올라선 것이다. 가계부채 비중은 작년 3분기 100.7%로, 경제규모(GDP)를 넘어선 이래 3분기째 확대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는 스위스(133.4%)와 호주(123.4%), 노르웨이(114.3%), 덴마크(111.2%), 캐나다(110.8%)로 서방 선진국뿐이다.

올 1분기 말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2104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100조 원을 돌파했다. 가계 신용 기준으로는 1765조 원에 달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민간부채 신용갭은 전 분기(17.6%p)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18.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7위에서 5위로 두 단계 뛰어오른 것이다. **▶4면에 계속**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아쉬세븐 해외서 잘나간다더니...

아쉬세븐이 조합원과 시장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밝혔던 해외 진출 사업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쉬세븐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던 미국 지사와 일본 유통회사들에 이투데이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기업이 “거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지사로 공개된 주소에는 한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다.

앞서 아쉬세븐은 일본 도쿄 이다 코퍼레이션, 바쿠추, 선스마일 인코퍼레이션, 아라타 등을 통해 자사 제품 5000여 개를 유명 드레스스토어 및 H&B 스토어에 입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쉬세븐은 지난해 4월 모 중앙 일간지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는 기회’... 베이커세븐, 일본 스토어 입점 늘린다’ 제하 기사를 통해 “아쉬세븐의 화장품 브랜드 베이커세븐(BAKER7)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대형 유통사 도쿄 후지코센, 이다 코퍼레이션, 플러스원, 바

“디스토어 입점 MOU 맺었다”
일부 현지기업 “거래사실 없어”
美지사 주소엔 변호사 사무실
아쉬세븐측 아무런 해명도 없어

쿠추 등을 통해 5000여 개의 유명 드레스스토어 및 H&B 스토어에 입점시킨 베이커세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서 찾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sun smile Inc.’(선스마일 인코퍼레이션)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2월에는 엄모 센트럴인사이드 대표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면서 아라타와 MOU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설명에서 “아라타는 일본 내 대형 밴드기업으로 전국에 유통망을 보유한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앞서 공정한 이다 코퍼레이션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체”라고 적었다.

본지가 일본 기업들에 아쉬세븐과의 관계를 확인 요청한 결과, 이다 코퍼레

이션, 아라타 등은 “문의한 브랜드는 취급하지 않는다.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라타의 경우 “향후 MOU를 할 예정도 없다”고 밝혔다.

아쉬세븐이 ‘인기몰이 중’이라고 주장했던 미국 시장 진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미국에 독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뷰티 행사와 전시회 등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독립법인의 미국 현지 주소에는 모 법무법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여러 회사가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처음에 아쉬세븐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중에 잘되면 나가는 조건으로 등록해 줬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쉬세븐 측 직원을 보거나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투데이는 아쉬세븐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박기영 기자 pgy@**
이민희 수습기자 nancho0907@
이민재 수습기자 2mj@

코로나 밀고 실적 'V자 반등'... 4분기에도 이어갈까

삼성전자 3분기 매출 70조 돌파·SK하이닉스, 영업이익 3배 ↑
정유·석화·철강 호조세... 조선3사, 올해 수주 반영 안돼 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산업계가 조선업을 제외하고 완연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펜트업(Pent Up·역놀이) 수요 확산이 지속하면서 전방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는 덕이다.

다만, 4분기에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중국 헝다그룹 부실 여파 등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실적개선 지속가능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폴더블 스마트폰의 흥행에 힘입어 3분기에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3분기 매출은 7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역시 1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도 하반기 반도체 수요 증

가와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 작년 3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한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까지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는 신규 CPU 채용 확대와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견조한 서버와 모바일 수요를 나타냈다. 시스템반도체는 스마트폰 성수기 진입으로 수요가 늘고, 글로벌 IT 제품과 TV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던 정유·석화업계는 3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9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오일(S-Oil)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4728억 원으로 전년

국내 기업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 (단위: 억 원)

업종	기업명	2021년 3분기(전망)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3분기	업종	기업명	2021년 3분기(전망)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3분기
반도체·전자	삼성전자	155,035	65%	93,829	조선	한국조선해양	-693	적자전환	407
	LG전자	11,431	19%	9,590		삼성중공업	-616	적자지속	-134
	SK하이닉스	40,710	213%	12,997		대우조선해양	-635	적자전환	336
화학	LG화학	12,607	40%	9,021	철강	포스코	23,590	254%	6,667
	롯데케미칼	4,749	145%	1,938		현대제철	6,544	1,859%	334
정유	SK이노베이션	4,659	흑자전환	-289	자동차·부품	동국제강	2,113	147%	857
	S-Oil	4,728	흑자전환	-93		현대차	17,990	흑자전환	-3,138
					기아	13,301	581%	1,952	

※ 출처: 각 사 및 에프앤가이드

동기 영업손실 93억 원에서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제마진 상승과 이익률이 높은 윤활유 사업 강세 덕분이다.

석화업계는 미국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봤다. LG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6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9021억 원 대비 39.7% 늘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474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1938억 원 대비 147% 늘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58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38억 원 대비 1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사들도 호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2조3590억 원)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분기(2조2006억 원)에 달성했던 신기록을 1개 분기 만에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현대제철(6544억 원), 동국제강(2113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9%, 1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등 전방 사업 호조로 철강 수요가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 점이 큰 역

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사들과 달리 한국조선해양(-693억 원), 삼성중공업(-616억 원), 대우조선해양(-635억 원) 등 조선 3사는 적자에 머무를 전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수주 부진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됐다. 올해 따낸 수주는 일러야 내년 하반기 실적부터 잡힌다.

현대차는 3분기에 1조79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영업익도 1조3301억 원으로 전망된다. 양사 모두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인데, 신차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된 엔진 리콜 관련 대규모 충당금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관계자는 "4분기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의 유동성 공급 축소,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세계 경기 등락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21'에서 총 61개 상을 받으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공모전에서 48개 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은상 7개, 동상 3개와 본상(파이널리스트) 38개다.

은상을 받은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세련된 무풍큐브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교체 가능한 전면 패널을 적용했으며,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슬립'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생활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또한, 'Neo QLED 8K'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프레임 가진 인피니티 스크린(Infinity Screen)과 초슬림의 유려한 디자인으로 최상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삼성·LG·현대 'IDEA 2021' 61개 상 'K디자인 쾌거'

삼성전자, 48개 상 '썩쓸이' LG TV '스탠바이미' 최고상 현대차 아이오닉5 금상 수상

△최적의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솔루션 '스마트싱스 쿠킹' △국가별 제품 조형 선호도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디자인 프레임' △미레 스마트폰과 로봇 관련 콘셉트 디자인도 은상에 선정됐다.

LG전자는 총 10개 상을 받았다. 특히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 LG 스탠바이미(StandbyME)가 어워드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최고상을 받은 LG 스탠바이미, 금상을 수상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은상을 수상한 삼성 '비스포크 큐브 에어', LG 스탠바이미는 기존 TV와는 차별화된 무빙스탠드 디자인이 특징이다. 시정하는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인체공학 디자인도 장점이다. LG 스탠바이미는 앞서 iF 디자인 어워드 2021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도 본상을 받으며 올해 열린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석권했다. △LG 올레드 에보(OLED evo)의 디자인을 보다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갤러리 스탠드 △유려한 곡선 디자인을 활용한 LG 사운드 바 에클레어(Soundbar

Eclair) △선과 여백을 최소화한 원바디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 △집안 어느 공간에 놓아도 조화로운 디자인의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 등 4개 제품이 동상을 받았다.

현대차는 금상 1개를 포함해 총 3개의 상을 받았다. 금상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다.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모아 램프와 충전구 등을 디자인하는 방식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활용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현대 블루링크 앱과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본상을 받았다.

IDEA는 디자인 혁신성과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를 심사해 △가정 △소비자 기술 △디지털 인터랙션 △디자인 전략 등 20개 부문에서 올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이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 시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한양행 와이즈바이옴

- 1 특유유산균을 포함한 유한 복합균주 포뮬라
- 2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의 배합 비율을 확인하세요!
- 3 대장까지 살아가는 특허 받은 SP 코팅



Y's BIOME
와이즈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부원료) 유산균대사산물포스텍(이)오릭스(부원료)

와이즈바이옴

판매업소: (주) 유한양행 | 제조업소: 메디오젠 총주공장(주) |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광고입니다

“제2 리먼사태 가능성” vs “中 당국 개입해 불 끌것”

해외 전문가 전망 엇갈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발(發)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350조 원에 달하는 헝다그룹(이하 헝다)의 부채 위기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헝다가 섰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도 중국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만한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헝다의 디폴트 가능성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벌써 초도화 분위가. 헝다의 경영 위기는 단순 일개 기업의 도산 우려와는 다르다.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 주거·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심에는 헝다가 있다. 헝다는 자본이 몰리는 대도시 대신 지방 소도시 개발에 주력하면서 소도시 개발과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만 중국 전역 200개 도시에 약 800개에 달한다.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자 주식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단번에 냉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헝다 사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모멘트(Lehman Moment)’에 빗댄 ‘에버그란데 모멘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헝다의 유동성 위기는 회사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가 맞물린 결과물이다. 인민은행은

리스크 부각에 금융시장 출렁

디폴트 팬 中 경제 막대한 타격

리먼 때와 달리 신용경색 없어

루비니 “전세계, 부채의 덩어리”

2018년 11월 헝다의 막대한 부채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지난해 8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고자 부동산개발업체의 차입 비율을 제한하는 ‘3대 레드라인’을 도입했다. 같은 해 9월 헝다가 자금이 부족해 우회상장을 광둥성 정부에 요청했다는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 서 이 회사의 위기설이 본격화했다.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헝다가 파산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당국이 ‘데미불사’는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헝다를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헝다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에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정부가 헝다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지원 여부가 사실상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헝다 사태는 당국이 촉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은 중국 정부가 어떻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 일지

연도	월	내용
2018년	11월	인민은행, 중국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소 중 하나로 헝다 지목
2020년	8월	중국 당국, 12개 주요 부동산개발업체 차입비율 제한하는 ‘3대 레드라인’ 도입
	11월	선전중시 우회시장 계획 철회, 헝다부동산 홍콩중시 IPO로 18억 달러 조달
2021년	6월	피치, 헝다그룹 신용등급 ‘B+’ → ‘B’로 강등
	7월	홍콩 일부 은행, 헝다 주거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2건에 대한 신규 대출 연장 거부
	8월	S&P, 헝다그룹 신용등급 ‘B+’ → ‘B-’로 2단계 강등
	8월	무디스, 헝다그룹 신용등급 ‘B2’ → ‘Caa1’로 2단계 강등
	8월	S&P, 헝다그룹 신용등급 ‘B-’ → ‘CCC’로 2단계 강등
9월	무디스, 헝다그룹 신용등급 ‘Caa1’ → ‘Ca’로 강등	
9월	피치, 헝다그룹 신용등급 ‘CCC+’ → ‘CC’로 강등	
9월	투자자들, 헝다 본사에서 시위	

* 출처: 로이터



게 하나에 따라 달렸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교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개입 없이는 엄청난 수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개입을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헝다에 관한 계획을 놓고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성장이 막대한 타격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헝다의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먼 때와 달리 헝다의 부채 위기로 인한 광범위한 신용 경색 신호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S&P에 따르면 헝다의 대출 규모는 중국 은행 대출 총액의 0.3% 수준이다. 바클레이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은행권 자산은 45조 달러이며 부채는 30조 달러 규모”라며 “350억 달러 규모 은행 대출을 포함한 헝다의 채무가 상황을 바꾸게 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헝다 사태를 기점으로 글로벌 부채에 대

한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닥터 돔’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루비니매크로어소시에이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부채의 덩어리’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부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려고 할 때 채권시장과 증시, 신용시장,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고승범 “리스크 확산 우려...모니터링 강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헝다 주가 75% ↓ ... 변동성 확대
韓 증시 단기 하락 우려 가능성
증권사·운용사 미리 비중 줄여

중국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인 헝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 이자 지급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손자그룹인 헝다자산관리를 통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WMP, Wealth Management Product)의 상환 어려움 등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헝다그룹의 위기에 글로벌 증시가 공포로 출렁였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 역시 단기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주 신용평가사 피치(Pitch)는 헝다 그룹이 23일 도래하는 채권이자 8350만 달러에 대한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투자등급을 정크 CC레벨로 하향 조정했다.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헝다 주가는 연초 이후 75% 이상, 역외 채권 가격은 70% 가까이 할인돼 거래 중이다. 역외 채권은 9월 13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중국 시중은행에 헝다그룹의 대출 규모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6월 헝다그룹이 광둥성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던 문건 내용에 따르면 총 128개 은행 및 121개 비은행 금융기관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영향의 불가피함을 역설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형현 기자 carlove@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파산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부동산개발 기업 헝다 그룹과 관련해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헝다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헝다그룹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주요 지표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부동산 위험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연결되는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와 가을 최고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경기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헝다그룹 처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헝다그룹 해체와 자산매각에 방점을 찍고 본격적인 부실채권 처리는 내년 말 이후로 이 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내 자산운용업체 등도 이미 선제 대응에 나서 관련 상품 등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헝다 사태는 이미 1년 전부터 거론된 만큼 증권사나 운용사들도 자금 운용을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가족의 약속을 담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__ 서부발전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시대가 바라는 안전한 에너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리더

Wp 한국서부발전(주)

대출금리, 가계대출 규제 압박에 2주새 0.3%p '깡충'

은행, 당국 입김에 대출총량 관리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려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 0.35%p ↑
은행채 5년물 금리 인상폭의 4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최근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는 2주 만에 0.3%포인트 안팎으로 뛰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61~4.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인 3일(2.80~4.30%)과 비교해 최저, 최고금리가 각각 0.16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상승했다. 하단과 상단에서 0.35%포인트, 0.229%포인트 오른 셈이다.

하지만 지난 14일간 신규 코픽스는 불과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

리 코픽스를 활용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대출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대출금리 상승을 지표금리 상승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3.10~4.1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3일(3.00~4.05)보다 상·하단이 모두 0.1%포인트 낮졌 뒤였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 등 금융채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일 1.939%에서 17일 현재 2.029%로 2주일 새 0.09%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 인상폭은 거의 4배인 0.35%포인트에 이른다.

결국 은행들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가산금리를 더 올렸거나 우대금리를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KB국민은행의 경우 불과 약 열흘 사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0.3%포인트나 올렸다. 앞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 데 이어 불과 13일만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 일찌감치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농협도 같은 16일부터 신용대출의 우대금리, 주택 외 부동산담보 가계대출의 만기 연장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까지 모두 0.2%포인트 낮췄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오른 셈이다.

권진산 기자 jinsan@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폭 '세계 9위'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2위

▶1면서 계속

신용갭이란 명목 GDP 대비 가계와 기업부채의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로, GDP에서 가계와 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빠르게 늘어날수록 커진다. 통상 신용갭이 2%포인트 미만이면 정상, 2~10%포인트 사이면 주의, 10%포인트를 넘으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전 분기보다 1.2%포인트 증가한 45.7%를 기록했다.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증가 폭 기준 9위에 오른 것이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21위에 그쳤다. 정부

부채 비중 상위국은 일본(237.0%), 그리스(223.9%), 이탈리아(179.4%) 순이었고, 하위국은 룩셈부르크(29.2%), 스위스(31.2%), 칠레(36.2%) 순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계속 빨리 늘고 있다. 다만, 올 하반기엔 증가세가 분명 진정될 것으로 본다. 신용갭도 추가로 확대되기보다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후 확대 재정정책이 이어지며 정부부채 증가율도 빠르다. 다만 GDP 대비 비중은 워낙 낮은 상태에서의 증가율은 큰 의미가 없다"며 "빠른 증가율은 늘 경계해야 하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귀경길 '코로나19 선제검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 초반을 나타낸 22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귀경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박차

美 백신 원료기업 설비투자 유치
화이자 CEO 만나 조기공급 논의
베트남에 100만회분 지원 약속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설비 투자 유치와 추가 백신 지원 요청을 비롯해 백신 지원에도 나서는 등 백신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현지시각으로 21일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앨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하고, 내년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2022년 사용할 백신 30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화이자와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추가 백신 공급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바란다"며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에 최대한 계약 물량을 조기에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 회장은 "내년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면 조기 공급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백신 위탁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가지 백신을 위탁생산 중인데 현재까지 한 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블라 회장은 "코로나 이외의 백신과 다른 치료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 강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백신 설비 투자에 대한 약속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백신협약 체결식에서는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인 사이타바(Cytiva)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 5250만 달러를 투자해 고부가 세포배양액 등 생산시설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번째 사례로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양국 백신기업 간, 연구기관 간에는 면역 증강제 공급과 백신 후보물질 도입, 백신 공동개발, 백신 위탁생산 등 총 8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영국과는 백신 교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빠르면 25일부터 영국에서 mRNA 백신 1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2차 접종 간격 단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우리나라가 남는 백신을 우선 활용하고 영국이 필요할 때 값싼 방식의 교환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베트남 응우옌 수언 폭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다음 달 중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이 백신을 해외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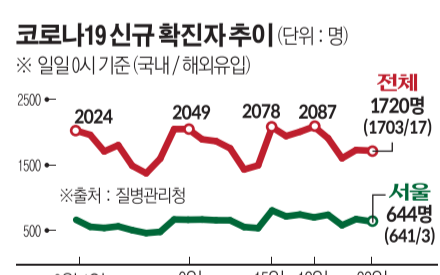
돌파감염 10% 넘어... 코로나 '전국 확산' 기로

명절 인구이동량 전주보다 8% ↑
가족·지인 중심 추가 확진 우려
내주 확산세 가팔라질 가능성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나흘째 2000명을 밑돌았다. 추석 연휴 기간 진단검사 감소에 따른 휴일효과로, 내주부터 다시 확산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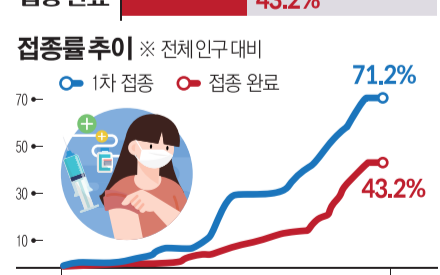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이 1703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131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충청권과 호남권, 강원권 등에서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건은 주말 이후다. 통상 휴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른 진단검사 감소 등으로 확진자가 줄어든다. 이번주에는 추석 휴일효과가 종료되는 토요일(발표기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뒤 일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휴일효과로 다시 확진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음주 수요일부터 휴일효과가 완전히 종료됨과 동시에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지표에 반영되면서 확진자가 급증



코로나19 전체 인구대비 접종률 현황

※ 9월 22일 0시 기준



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방역지표는 다음주 확진자 재증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휴가 시작된 18일 기준 인구이동량은 전주보다 5.3%, 이동 평균 기준점 대비 8.0% 증가했다. QR코드 이동량 분석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로 이달 2주 차 수도권의 오후 9시 이후 이동량이 전주보다 39.3% 급증했다.

이런 과정에서 무증상·미확인 확진자가 늘었다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전국의 가족·지인 등에게 추가 전파가 발생했을 위험이 크다.

강도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인해 그동안 다소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비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진단검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휴 이후 예방접종 속도도 변수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 2만895명 중 89.8%는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였다. 접종 완료자는 10.2%였는데, 5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중이 10%를 밑돌았다. 이날 0시 기준 1차 이상 접종률은 71.2%, 접종 완료율은 43.2%다. 연휴가 시작되고 접종률이 정체돼 있다.

강 차장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0.8일이었던 반면, 델타 변이는 그 기간이 1.8일이라고 한다"며 "이처럼 무증상 상태에서도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8월 기준>

‘그냥 쉰’ 30대 18개월째 늘어 31만8000명 역대 최대

한국 경제 ‘허리’가 된다 ‘쉬었음’ 증가 속도 점점 가팔라져 취준생도 17% 급증 역대 최대치 제조업 취업자 20대·60대로 대체

30대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호조에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기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30대는 기존 구직자의 상당수가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하는 상황이다.

이투데이가 22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8000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병원 치료나 육아가 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직활동 자체가 없기에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기류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보다 6.3% 증가했다. 일할 능력과 무관하게 비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될 우려가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0대 취업자 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라면서도 “30대 취업 비중이 큰 도-

소매업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세를 띠는) 제조업에서도 (30대가 아닌) 60세 이상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연령대가 30대에서 20대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실적 악화로 30대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회복 이후에는 신규채용 위주로 고용이 회복된 탓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중 30대 비중은 23.8%로 전년 동월보다 1.1% 포인트(P) 하락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일반적인 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업무나 상황에 따라 고용 조건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타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0대에선 쉬었음 인구에 더해 취업준비생도 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9% 급증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취업준비생은 취업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기관에 다니는 인구로, 취업시험이 없는 달에는 구직활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쉬었음 인구처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30대 취업준비생 증가는 쉬었음 인구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는다. 취업준비생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취업 실패가 누적되면 항구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할 수 있어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기름값 짙کم 내려 리터당 1641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5주 연속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락폭은 일주일에 1당 1원 내외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13~16)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4원 내린 1당 1641.8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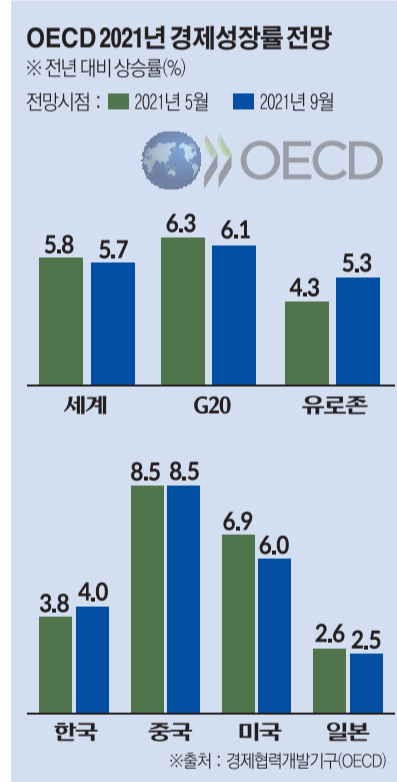
OECD, 한국 성장률 상향 ‘주요국 유일’

韓 올해 4%·내년 2.9%로 높여 美·日 등 전 세계 성장률 하향 ADB도 韓 성장률 올 4%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예방접종 지연을 반영한 것이다.

OECD는 21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가 각각 5.7%,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전망과 비교해선 각각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위기 전 성장경로를 여전히 하회한다”며 “국가별·부문별로 GDP·고용 등 회복세는 여전히 매우 불균등한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국가별로 호주(-1.1%P), 캐나다(-0.7%P), 미국(-0.9%P), 러시아(-0.8%P) 등의 올해 전망치를 상대적으로



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올해 3.8%에서 4.0%로 0.2%P,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2.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치 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1·2022년 모두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전체 국가 중 4개국에 불과하고, 글로벌 상위 10개 국가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치를 반영한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국가 중 3위, 선진국 중에선 1위다.

성장률과 별개로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4%P 높은 수치다. OECD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물가는 기저효과 소멸과 공급능력 향상 등으로 내년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DB는 22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아시아 46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2%에서 7.1%로 0.1%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5.4%로 유지했다. 한국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기존 전망(4.0%, 3.1%)을 유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년까지 도시철도 모든 차량 CCTV 설치

정부가 내년까지 KTX와 SRT 등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철도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철도 중 서울 교통공사 9호선(100%), 2호선(98%)과 7호선(97%) 등 CCTV가 대부분 설치된 곳도 있지만 1호선, 3호선, 4호선에는 CCTV가 아예 없는 등 평균적으로 CCTV 설치율은 36.7%에 불과하다.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도 신방당선은 CCTV가 100% 설치돼 있으나 한국철도 3호선(일산선)과 경의중앙선 등에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 평균 설치율은 16.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도는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동물병원 진료비 1회 평균 8만원...국가 의료보험 논의

수의사회, 정부 위탁 연구입찰 공고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최근 진료 정보 표준화 등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주요 내용은 동물을 진료할 때 질병명과 표준코드 체계 등을 수립하고, 질환별 진단이나 치료 절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동물진료 표준화가 이뤄지면 동물병원 이용자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물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물병원 이용자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0.7%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8만3000원으로 지난해 7만5000원에서 9.6% 늘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한전 ‘부채 142조’ 전기료 8년 만에 인상 가능성

유가 상승 물론 탄소중립 자금 조달 위해 불가피 물가 상승·내년 대선 부담 탓 인상폭 최소화 전망

4분기 전기료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 상승, 탄소중립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 인상 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23일 4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현 상황을 볼 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우선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전기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월과 직전 연도 평균 국제유가의 큰 차이가 발생했다. 직전 3개월인 6~8월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70달러로 직전 1년간 평균 국제유가는 약 53달러보다 크게 올랐다.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해 9월 18일 53.66달러를 찍은 뒤 약 1년 뒤인 이달 17일 182.6달러로 급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를 볼 때 전기요금은 2~3분기 상승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 물가상승, 전기료 미조정액(여유분) 등을 이유로 전기료를 묶어 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는 악화하고 있다. 2분기 연료비 등의 증가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아 7000억 원 넘는 영업손실이 났다. 한전의 누적부채도 지난해 132조 4753억 원에서 올해 142조 1354억 원으로 1년 새 9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요금 책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여유분)도 2~3분기 다 소진했다는 점도 상승 압박 요인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2016년 1조 5159억 원, 2017년 1조 9713억 원, 2018년 2조 1529억 원, 2019년 2조 6028억 원, 2020년 2조 5071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 7553억 원을 기록했다. 전기요금 인상 시 분기당 최대 변동폭은 kWh당 ±3원으로 4분기에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월 1050원이 오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과 물가 상승은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는 요인이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전기료 인상을 하기엔 부담이 있어 인상되더라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제76차 유엔총회

“印太 외교 집중” vs “소그룹 지양”... G2 날선 신경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유엔 무대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인 발언으로 정조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이후 철저하게 외교를 추구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미국이 초점을 인도-태평양 같은 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 지역을 포함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외교-안보 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안보 협의회를 정상 간 회의체로 격상하고 나서 최근 ‘오커스(AUKUS·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파트너십)’까지 설립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대중국 압박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미군 병력 전원 철수로 중지부를 찍은 아프간 전쟁을 염두에 둔

文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지막 베풀

‘중전선언’ 제안했지만 실효성엔 의문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중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선언을 통해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을 강조했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문 대통령이 다시 중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교착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노딜’로 끝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초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변화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순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리 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난하는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임기를 약 8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멈춰 버린 한반도 평화 시계를 돌리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북한과 미국이 응답할지 미지수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돼 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도 가장 큰 당면 과제다.

미국 역시 이전 북미대화에서 중전선언을 비핵화 상응 조치로 논의해온 만큼 중전선언에 주제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란



뉴욕/연합뉴스

쉽지 않아 보인다. 첫 유엔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중전선언 제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실무 차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보통업’ 방식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남북미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압박하려는 자세로도 읽힌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중인 22일(현지시간)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바이든 “약자 지배하려는 강대국 반대...북한 비핵화 추구” 시진핑은 ‘오커스’ 우회비판하며 “인류 공동체 건설” 촉구

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주의만이 인류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면서, 중국을 겨냥한 듯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과 우방을 옹호하는 한편, 약자를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며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경제적 강압, 허위정보 유포 등을 강대국의 악의적 행동 사례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신냉전이나 경직된 블록으로 나뉜 세계를 추구하진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소그룹과

듯 “외부로부터의 군사 개입과 이른바 민주주의적 변혁은 해를 입힐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상호존중과 공평 정의, 협력과 상생의 신행국제관계를 건설하고, 이익의 접점을 넓히고,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야 한다”며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군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세계는 또 한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전 세계적 위험과 도전에 함께 맞서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더 나은 세계를 함께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자”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외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지원한다는 의향도 피력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문화 특사 ‘BTS의 힘’...“100만 명이 라이브 시청”

‘SDG 모멘트’ 연설 1200만 뷰 해외언론 “세상에 희망 전달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엔총회 참석 소식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주목했다. 행사 라이브 영상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BTS 효과에 유엔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역동적인 춤과 중독성 있는 가사, 열광적인 팬으로 유명한 한국 팝 그룹 멤버들이 전달 유엔 본부에서 가진 7분간의 연설에서 백신을 홍보하고 젊은 층의 회복력에 응원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BTS는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전달 개최된 제76차 유엔총회 특별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에서 연설했다. 또 BTS



BTS 멤버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특별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최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는 유엔 본부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히트곡인 ‘퍼미션 투 댄스’를 춤과 함께 선보였다. 유엔이 유튜브에 올린 해당 공연 동영상은 조회수가 1200만 회를 넘었다.

AP통신은 “BTS가 글로벌 외교에 뛰어들었다”며 “이들의 연설은 극심한 빈곤 퇴치와 지구 보존, 성 평등 달성을 포함한 유엔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극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BTS는 대통령 특사로서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와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진 덮친 호주 멜버른 22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채플 스트리트 쇼핑가에서 구조대원들이 지진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호주 남부 멜버른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맨스필드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초 호주 정부는 지진 규모를 6.0으로 발표했다가 이후 5.9로 조정했다. 이날 지진 여파에 호주 제2도시 멜버른 주요 상업 지구에서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멜버른/AFP연합뉴스

“셋다운 피하자” 美하원,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 공화당 반대 입장 상원 통과 미지수

미국 하원이 10월 연방정부 셋다운을 피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전히 상원에서 부채 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통과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일시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20표, 반대 212표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12월 3일까지 운영을 이어가도록 하고 부채 한도 역시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2019년 연방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고 기한을 7월 말로 정했다. 이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양당이 대치했고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제 발행을 통

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은 현금과 비상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10월 정부 셋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법안이 통과해야 하지만, 상원에서 통과할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민주당과 당국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144조 원) 규모의 조 바이든표 예산안에 부채 한도 법안을 포함해 기존 예산 규모를 축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킨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재해 지원안은 투표할 수 있지만,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한도

‘10월 셋다운 피할까’ 미 하원, 부채 한도 유예안 통과·상원이 최대 난관을 올리진 않으면 사회보장같은 중요한 정부 역할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한도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등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부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경고했다.

CNBC는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한도 유예안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소모되고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세상. 행복해지구

지구가 더 깨끗해지길
사회는 함께 더 따뜻해지길
기업은 신뢰와 공감을 통해 더 든든해지길

SK가 ESG로 만들어가는 길

지구도 사회도 기업도
지속가능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수소 Value-Chain

꿈의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생산-유통-공급망 생태계 조성



행복얼라이언스

걸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기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안전망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회에 도움 되는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가 좋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사용 확대

행복해지구



이재명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호남 비하 논란

낙 “수박, 5·18 희생자 일베 용어” 명 “결과 속 다르다는 일상 표현” 호남 경선 21일부터 온라인 투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이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확산과 비하성 발언 논란 등 약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연승을 저지할 막판 변수로 발동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21~22일 시작된 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투표 결과는 25일, 전북 결과는 26일 공개된다. 이 지사의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국정감사나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정치 문제로 비화하지 말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나아가,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개발 사업 정당성을 강조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총공세에 못지않게 이 지사는 공



19일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추미애·김두관·이재명·박용진·이낙연 후보. 연합뉴스

약으로까지 연결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정면 돌파 태세를 갖춘 이 지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20일부터 하루 2건 이상씩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개발 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남 비하 발언 논란까지 번졌다.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을 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

표 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수박이란 표현은 흉어에 이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쓰는 용어로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며 “호남인의 자존심이자 5·18 희생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수박은 안이 빨강다는 뜻을 지닌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결과 속이 다르다고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냐”며 “제가 ‘수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개혁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영개발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호남과 관계가 있냐”라고 밝혔다.

선거인단이 약 20만 명에 달하는 호남 지역 경선(25·26일)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 이전 대표는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광주 선거인단이 약 12만8000명, 전북이 약 7만6000명에 달해 지역순회 경선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경선 초반 내내 선두인 이 지사와 2위 주자 이 전 대표의 표차는 약 11만 표에 불과하다.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의 표까지 일부 흡수해 이 지사 누적 득표율(53.7%)을 과반 아래로 끌어내린다면 경선 투표로 갈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정세균계 안호영 의원(재선,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QR 코드와 유튜브 링크를 통해 물리와 방울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윤석열 “국익 우선 당당한 외교 北 비핵화·대화 평화 체제 구축”

외교·안보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익을 가장 우선으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다”며 11가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외교 정책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일, 대중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방점을 뒀다. 특히 각종 회담을 정례화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과 관계에서는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언급하며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고 말했다.

안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주변국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여야 한다”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각종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간의 소통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안철수 “공무원 피살 1년...文정부, 사람보다 北이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당시 정부가 좌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본인이 직접 진상규명을 돕겠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진 날”이라며 “최근에야 정부는 실종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실종자의 위치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가 있지만, 군사기밀이라 알려주지 못한다고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라며 “유가족 부인께서는 ‘몸이 떨리고 역장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집권 세력에게 정의는 내로남불, 즉 선택적 정의”라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총으로 쏘 죽이고 불태웠는데 평화와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국가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대의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변동금리 낮은데 갈아타라고? 외면받는 '금리상한 주담대'

이자 상승폭 2%p 이내로 제한되지만 0.2%p 가산금리
아직 변동금리 낮아 수요 없어... 5대 은행 가입 27건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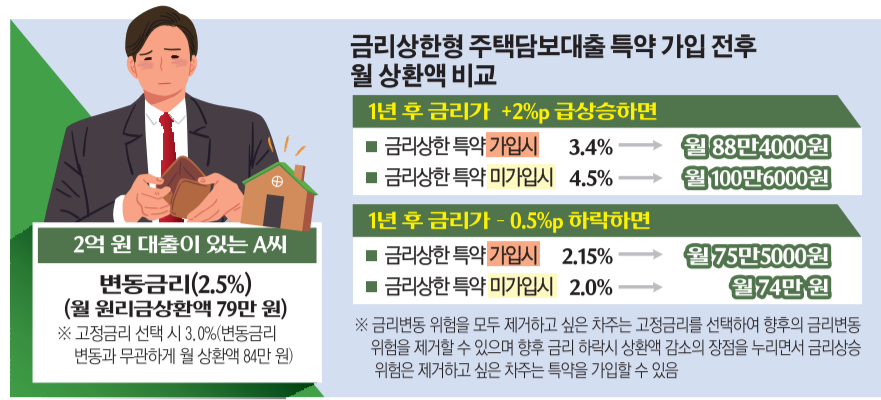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이자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시 출시했지만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아직 주담대 변동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찾는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27건, 47억776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 중에는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7월 15일에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금리상승기에 이자 변동 리스크에 노

출된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게 돼 있다.

앞서 2년 전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시중은행들과 함께 금리상승 시 리스크를 줄여주는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향후 5년 간 금리 상승폭이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했다. 현재 변동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굳이 0.15~0.2%p의 가산금리를 더 지불하면서까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상승 폭이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컨대 2억 원을 연 2.5%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현재는 매월 79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만약 1년 후 금리가 2%p 오르면 상환액은 100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가입하면 이자 상승 폭이 0.75%

p로 제한돼 상환액은 88만4000원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다.

문제는 현재 대출 시장에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폭을 더욱 줄이고 이용 대상자도 확대했다.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금리 상한 특약을 지원한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2019년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기준을 올해에는 아예 없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상품 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은 아직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당장 낮기 때문에 차주들이 금리 상한형을 택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내 금리비교사이트를 보면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대출금 2억 원, 대출 기간 2년 설정)하면 변동금리 최저금리는 2.7%, 고정금리 최저금리는 2.92%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아직 낮은 경향이 있어서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소법 위반 1호 될라” 면책기준 없어 금융권 혼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도기간 종료로 1일주 앞두고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소법 위반 1호’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소법은 6개월 간의 제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종료된다. 25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소법이 시행된다. 제도기간 중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면책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때문에 금소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금소법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통합 정리했다. 자본시장법 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을 합쳐 소비자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취지다. 창구직원 구두 설명에 대해서는 핵심을 제외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결과나 소비자보호 제도의 일반 사항 등을 금융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제도기간 내일 종료
위법 관련 가이드라인 빠져
창구직원 보수적 응대 예정
금융상품 비교 ‘중개’로 해석
핀테크 업체 대책마련 고심

유사한 상품이 가입할 경우 이전과 공통된 사항은 간소화된 형태로 설명을 들 수 있다. 설명은 동영상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구두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제도 일반이나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호 규정은 동영상을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금융업계가 기대하고 있던 면책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금융업계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창구 직원이 취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다. 투자상품 핵심설명서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애매한 법조항의 해석이나 실무적용 방법에 대한 마련을 각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판매사 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

인을 자칫 잘못 해석할 경우 법을 어길 수 있다보니 창구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고객 응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적인 실무처리 방법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하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생겨서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 요청을 받고, 지난 15일까지 금소법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보완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업체별로 서비스 상황과 보완 방향을 취합·유형화 해 당국 의견을 받기 위해서다.

대출비교는 금융상품 판매중개·대리업에 등록하면 되고, 카드 추천 역시 제휴모집인이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투자와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상 이같은 제도가 없어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없으면 위법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체들도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중개로 판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험, 투자 등 제휴 상품이다. 제휴사와 협의 후 제휴 일시 종료 혹은 광고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코인거래소 신고 마감... 줄폐업 예고

정보관리 인증 충족 4곳뿐
실명계좌 발급 실패 중소사
투자수익 원화로 출금 못해
30여 곳 ISMS 인증 못받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신고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앤 채 운영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실명계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파악한 전체 63개사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뿐이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소형 거래소 일부가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은행이 주저하면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4곳이 유일하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끝난 직후 FIU에 신고서를 최종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신고를 수리했다. 금융당국은 3개월의 심사기간을 두고 올해 안으로 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은 확보했으나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장은 비트코인(BTC) 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거래소의 지갑 시스템을 통한 코인 교류만 가능하고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일부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24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현행 거래가 그대로 유지되나 투자 수익을 원화로 출금할 수 없다는 패널티를 갖게 되면서 이용자의 이탈이 우려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0여개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아예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중 대다수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거래소도 25일부터는 ‘불법영업’으로 취급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한국씨티은행 “글로벌 금융파트너로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

소비자금융사업 출구전략 추진

한국씨티은행은 본사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사업 출구전략 추진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한국경제 및 금융발전에 기여해 온 것처럼 향후에도 변함없이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출구전략은 특정 국가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번 전략과 관련해 고객 및 임직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며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금융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재편 및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1967년 9월 8일 서울 소공동에 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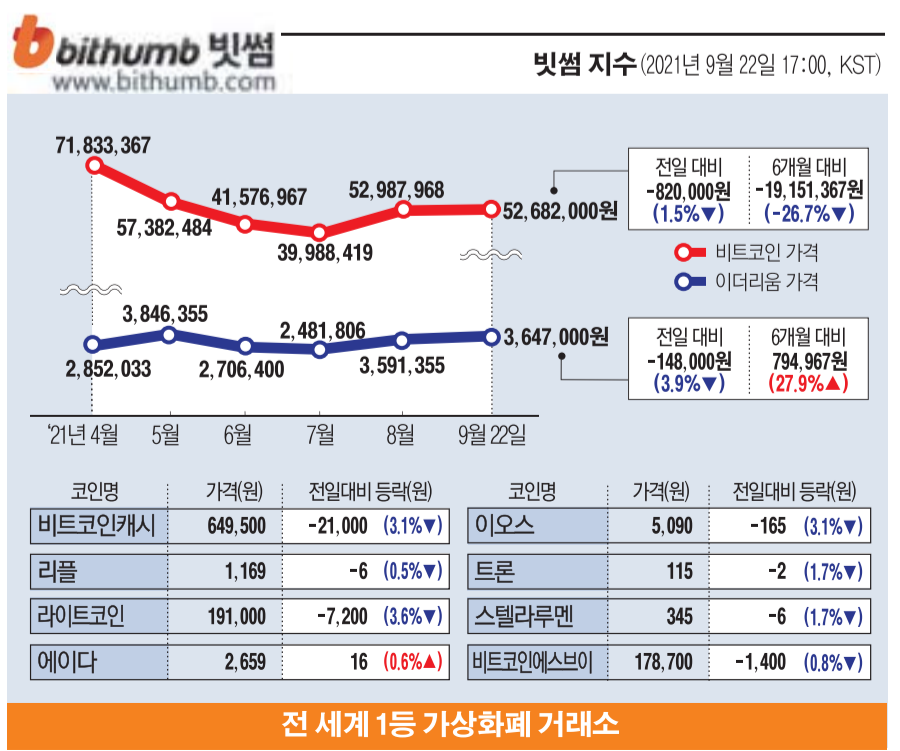
기업금융지점을 개설하며 경제 발전 초기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기업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발판 삼아 씨티은행은 1986년 외국은행 최초로 소비자금융 업무도 개시했다.

기업금융에서도 지난 2000년 당시 한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8000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주도했으며 1990년대부터 국내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뉴욕에 한국주재원을 운영하기 시작해 전세계 주요도시 코리아데스크를 통해 해외 소재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금융, 투자금융, 현지자금조달, 외환 및 자금관리, 무역금융 등에 걸친 다양한 글로벌 금융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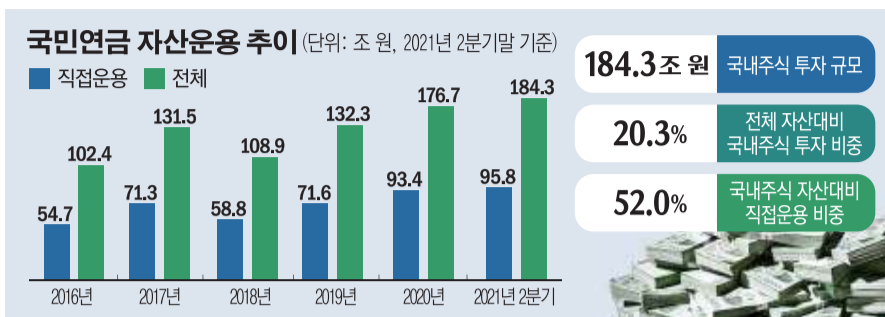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그룹은 1967년 국내 지점 운영을 시작으로 2004년 한국씨티은행을 출범 시킨 이래 지난 50여년간 한국 시장에 집중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뢰 받는 금융 파트너로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코스피 비중 줄이는 연기금, 올들어 23.5兆 던졌다

기관 이달에만 2.5兆 순매도
금융·은행·전자 중심 '팔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매도세
비중 16.8%까지 축소 전망



최근 연기금 등 투자자의 코스피 순매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이번달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5481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 중 연기금 등의 순매도는 1조5385억 원으로 전체 기관 투자자 비중의 60.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투자(-1조3330억 원)와 보험(-901억 원), 기타금융(-320억 원), 은행(-166억 원) 역시 코스피를 순매도했고, 투자신탁(3177억 원)과 사모펀드(1444억 원)는 순매수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기금 등 투자자는 금융업(-8199억 원), 은행업(-7916억 원), 제조업(-7601억 원), 전기전자(-7512억 원), 운수장비(-1334억 원), 서비스업(-1259억 원), 의약품(-467억 원), 기계(-235억 원), 의료정밀(-102억 원), 증권(-55억 원) 등을 팔아치웠다.

세부 종목으로 카카오뱅크(-7922억 원), 삼성전자(-4976억 원), 카카오(-2199억 원), 네이버(-1580억 원), 삼성SDI(-1786억 원), SK하이닉스(-1199억 원), 현대차(-826억 원), 한국조선해양(-813억 원), LG화학(-645억 원), 가아(-642억 원), 팬오션(-596억 원), 엔씨소프트(-516억 원), 셀트리온(-500억 원) 등을 순매도했다.

반면 크래프톤(2166억 원), 현대중공업(1109억 원), SK케미칼(432억 원), SK이노베이션(402억 원), SK텔레콤(396억 원), 대한항공(395억 원), 더존비즈온(356억 원), SK(354억 원), 아시아나항공(341억 원), SKC(335억 원), 한국가스공사(334억 원), 삼성엔지니어링(330억 원), 롯데케미칼(329억 원), 일진하이슬루스(324억 원) 등은 순매수했다.

연기금 등 투자자의 올해 코스피 거래 현황은 △1월 -8조645억 원 △2월 -4조3190억 원 △3월 -3조3389억 원 △4월 -2조9211억 원 △5월 -35억 원 △6월 -

2241억 원 △7월 -1조4482억 원 △8월 -6430억 원으로 꾸준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연기금 등 투자자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코스피를 순매도한 금액은 총 23조5104억 원이다.

연기금 등 코스피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이 코로나19 이전에 설정된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줄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주식 목표치는 16.8%지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상 국내주식 비중은 △2월 20.9% △3월 20.5% △4월 20.1% △5월 20.2% △6월 20.3% 등을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연기금의 100%를 차지하는 건 아닌만큼 지나친 의미부여를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연기금을 구성하는 비중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는 하지만 모든 걸 좌우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플랫폼 규제에도 外人 'کم백' 美연준 '테이퍼링'에 쏠린 눈

주간 증시 전망

삼전 등 반도체 1.6兆 매수
금리는 연말까지 상승 압력

이번 주(23일~24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와 같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 대형주들로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관련 에너지 업종들의 주가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국내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 강조에 따른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하락이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규제 논란이 수면 위에 오른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카카오의 주가는 25.38%(3만6000원) 추락했다. 이 영향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 역시 11.48%(5만1000원) 빠졌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대형 반도체를 팔아치우고 떠나갔던 외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삼성전자를 1조1347억 원 순매수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도 4618억 원 사들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4조6309억 원, 1조9929억 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9월 증시 흐름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당초 8월 증권가는 이번달 증시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문제에도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탈 강화로 인해 주식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며 국내증시는 또 한번 무기력증을 보이

며 3000포인트를 위협하는 급락 상황도 보였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서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 3분기 강세, 4분기 정체를 전망했다"며 "그러나 예상과 달리 3분기 주식시장은 8개월 연속 랠리에 대한 가격부담을 반영했고 주도업종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저가매수 심리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동되고 시간이 지나 정책리기가 인상됐지만 상당기간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위드코로나는 정부가 실업과 방역을 위해 지급한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개개인의 건강과 방역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백신 접종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자기만족을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이행할 텐데, 이전과 비교하면 항공, 숙박, 안전, 보험과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이후의 국내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에 따라 기조가 바뀔 것이라 전망도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이후 맞이하게 될 첫 거래일은 미 연준의 9월 FOMC 영향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장금리는 현 수준에서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상승 압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채 10년물 기준 1.5~1.6% 수준에서 상단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조기긴축 가능성은 제한된 상황에서 인프라 부양책 등 재정 정책 모멘텀이 금리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서학개미의 힘' 해외주식 거래액 300兆 돌파

지난해 결재액보다 40% 늘어난 326兆
테슬라 218억·애플 79억 달러 순매수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이 무서운 속도로 해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에 지난해 결재액을 넘어선데 이어 300조 원의 벽도 돌파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결재액(매수+매도)은 2771억 달러(약 326조 원)였다. 지난 해(1983억 달러) 대비 39.7%(787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해외주식 결재액은 지난 6월 21일 1985억 달러(233조 원)로 이미 지난해 결재액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장에서 촉발된 해외주식 투자 열기로, 해외주식 결재액은 연일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218억 달러)와 애플(79억 달러)이 결재액 1~2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기업은 순매수 1~2위 종목 자

리도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의 순매수액(매수결재금액-매도결재금액)은 14억5000만 달러(1조7027억 원), 애플은 6억1000만 달러(7210억 원)였다.

특히 연초에 나타난 '밈 주식'(meme stock-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 열풍으로 게임스톡(65억 달러), AMC엔터테인먼트(57억 달러)가 각각 결재액 3위·5위에 올랐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서학개미들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를 3배로 추종하는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ETF), 페이스 북·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 관련 지수의 등락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N(BMO REX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 등이 각각 4위, 8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 올해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158억 달러(18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순매수액(140억 달러)보다 12.8% 많은 금액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하반기 코스피 수익률, G7 중 꼴찌

-4.74%로 주요 20개국 최하위

코스피가 2개월 이상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 수익률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6월 말 3296.68에서 지난 17일에는 3140.51로 156.17포인트 하락 마감했다. 하반기들어 -4.74% 떨어졌다.

코스피는 올 해 상반기에만 423.21포인트 올라 14.73%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하반기 상승률은 주요 7개국(G7) 대표 지수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다.

지난 17일 기준 G7 가운데 6월 말보다 지수가 하락한 곳은 독일(DAX)과 영국(FTSE) 뿐이었다. 이들 지수도 하락 폭은 각각 0.26%와 1.05%에 불과했다.

이탈리아(FTSEMIB)가 하반기 12.61%의 상승률을 보이며 G7 중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5.93% 상승했다. 미국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3.72%와 3.15% 각각 올랐다.

G7 지수와 코스피의 하반기 평균 상승률은 2.15%이었는데, 주요 20개국(G20)의 대표 지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최하위권이

코스피와 G7 주요지수 하반기 상승률

국가	지수	2021년 하반기 상승률
이탈리아	FTSEMIB	12.61%
일본	닛케이225	5.93%
미국	나스닥	3.72%
미국	SP500	3.15%
캐나다	SP/TSX	1.61%
한국	코스피	1.57%
프랑스	CAC	0.96%
미국	다우존스	0.24%
독일	DAX	-0.26%
영국	FTSE	-1.05%
한국	코스피	-4.74%
합계		2.15%

* 출처: 한국거래소

였다.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낮은 국가는 남아공(-5.91%)과 브라질(-12.12%)밖에 없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가 출렁... 네이버 임원들 자사주 '줍줍'

"저가 매수 기회" 252주 매입 신고

최근 플랫폼 규제 압박에 국내 대표 플랫폼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이에 네이버 임원들은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14일 네이버 임원 6명이 자사주 총 252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39만7500원~41만1500원이다.

이들이 자사주를 사들인 기간은 정부와 여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논의되며 주가가 급락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 규제를 예고하자 이후 이들 동안 네이버 주가는 10.24% 떨어졌다. 이후 네이버는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하락 폭이 20%를 넘어섰다. 그

럼에도 임원들 중 카카오 주식 매입을 신고한 임원은 없다.

이에 대해 증권가는 두 회사의 사업구조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보다 먼저 플랫폼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동안 사업구조 개편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쇼핑 사업은 입점 업체에서 걷는 수수료가 아닌 광고 수익이 주된 사업 모델(BM)이다.

반면 카카오는 택시 호출·미용실 예약 등 수수료를 걷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확장하다가 질타가 이어지자 사업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의 사업이 내수 일반도인 데 반해 네이버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경우 골목상권 침해 이슈에서 벗어난다"며 "갑질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운 서비스"라고 진단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삼성생명 SAMSUNG

다 다른 인생에 다 맞춘 보험.

같은 나이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당신의 인생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인생보험이 되기 위해

다 다른 인생 즐겁게 나아가도록
삼성생명이 발맞춰 갑니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쌍용차 새 주인, 내주 운곽... 인수자금 증빙이 관건

이엘비엔티·에디슨모터스 경합 은행 지급보증 등 자료 보완 요청 늦어도 내달 초 우선협상자 선정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후보들의 투자 여력을 증명해 내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안사 EY한영회계법인은 오는 29일께 우선협상대상자 1곳과 예비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해 통보한다.

이날 쌍용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매각 주안사가 본입찰 이후 투자확약서와 은행 지급보증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30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라며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M그룹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쌍용차

쌍용차 인수 후보 현황	
이엘비엔티 컨소시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엘비엔티 카디널 원 모터스(구 HAAH) 사모펀드 파빌리온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디슨모터스 사모펀드 키스톤 PE 사모펀드 KCGI 세미시스코 등
<p>5000억 원대 초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입찰 가격 충 배터리 회사 보유 쌍용차 출신의 경영자(김영일 회장) 카디널 원 모터스 보유 美판매 네트워크 중등 수출 할로 확보 	<p>2000억 원대 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산 전기차 개발 경험 보유 전기 트럭 및 전기 버스 양산 중 구체적인 전기차 라인업 개발 계획 보유
<p>재무적투자자</p>	<p>제시 가격</p>
<p>비교 우위</p>	<p>비교 열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 주체로서 자금력 부족 (자본 30억 원 / 작년 매출 1억 원 미만) 전기차 및 양산차 생산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낮은 본입찰 가격 다수 사모펀드가 주 참여로 인한 인적 구조조정 우려

본입찰에 나선 곳은 모두 3곳이다. 이 가운데 이엘비엔티(EL B&T) 컨소시엄이 5000억 원대 초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2000억 원대 후반, 인디 EV가 1000억 원 초반의 금액을 각각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전에 여러 회사가 몰려 흥행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자금 조달 능력을 갖췄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쌍용차 측은 현재 제출된 인수제안서를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매각 주안사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증빙에 중점을 두고 투자 확약서와 은행 지급보증서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중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1000억 원대 금액을

적어낸 인디 EV를 제외한 나머지 2곳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이엘비엔티는 전기차·배터리 제조사다. 유력 투자자였던 미국 HAAH오토모티브의 새 법인 카디널 원 모터스, 사모펀드 운용사 파빌리온 PE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본입찰 과정에서 유럽 투자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배터리 회사를 보유하는 등 전기차 기술과 배터리 제조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인수 자금 이외에 '쌍용차의 수출 경쟁력 확대' 의지도 내세웠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카디널 원 모터스는 미국과 캐나다에 135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북미 시장에 쌍용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서는 에디슨모터스는 사모펀드 KCGI·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던졌다.

에디슨모터스는 현재 1톤 전기 트럭과 대형 전기버스를 판매하는 등 인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 상용차를 양산 중이다.

쌍용차 측은 인수 희망가격 이외에도 인수 이후 쌍용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10월 초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약 2주간의 정밀실사를 통해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친다. 11월 중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력 인수 후보 2곳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작은 회사 여력이 모여 큰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다.

쌍용차의 지난해 매출은 2조9297억 원이다. 이와 달리 에디슨모터스의 지난해 매출은 897억 원, 영업이익은 27억 원 수준이다. 직원 수도 180명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인수자금을 써낸 이엘비엔티 역시 자본금 30억 원에 작년 매출이 1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에쓰오일-삼성물산, 에너지 新사업 동맹

수소 사업 밸류체인 공동 개발 차세대 바이오 연료 협력 추진

에쓰오일(S-OIL)이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손잡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신사업 개발을 본격화한다.

에쓰오일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 에쓰오일 사옥에서 삼성물산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운영 비결과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수소 사업 밸류체인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바이오 연료 사업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수소 인프라 구축과 수소 공급 및 운영 사업을 개발하고, 해외 청정 암모니아와 수소 도입, 유통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 탄소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효율 수소 연료전지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선제적 공동 투자를 검토하는 한편, 친환경 바이오 디젤, 차세대 바이오 항공유 부문에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 중립, 신에너지 분야 진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에쓰오일은 2050년 탄소배출 넷제



류열(오른쪽) S-OIL 사장과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이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신사업 분야 중에서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수소 산업 전반의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수소 경제의 핵심인 차세대 연료전지 기업에 투자해 수소 사업에 진출했다.

올해 초, 차세대 연료전지 벤처기업인 에프씨아이(FCI) 지분 20%를 확보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대주주인 아랍코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수소,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사업 및 액화 수소 생산, 유통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복합 수소충전소 도입도 고려 단계다. 이를 위해 베스·트리의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rea Hydrogen Energy Network)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وری 기자 we1228@

‘글로벌 인재 확보’ 직접 나선 신학철 부회장

美 채용행사 ‘BC 투어’ 주관 MIT 등 석·박사 40여명 초청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변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해 나갈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미국 현지 채용 행사를 주관했다.

22일 LG화학에 따르면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부터 19일까지 유지영 CTO(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 김성민 CHO(최고인사책임자) 부사장 등과 함께 미국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 채용행사 ‘BC(Business & Campus)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조지아공과대, 코넬대 등 주요 10여 개 대학 및 연구소의 석·박사와 학부생 40여 명이 초청됐다. 행사에 참석한 인재들은 친환경·바이오 소재, 배터리 소재, 신약 개발 등 LG화학의 성장 동력 관련 분야의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인 ‘BC(Business & Campus) 투어’를 개최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세계 7대 화학기업으로 글로벌 Top 10중 유일하게 2019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기업 가치가 상승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변곡점 속에서도 LG화학이 유례없는 상승추진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와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창사 이래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여러분과 같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신 부회장은 취임 첫해부터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2019년에는 ‘BC(Business & Campus) 투어’ 최초로 유럽 지역의 인재 확보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채용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올해는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 연구·개발(R&D) 인재를 초청하는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노وری 기자 we1228@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송량 100만TEU

HMM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2만 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12척의 누적 운송량이 수출화물(헤드홀·아시아→유럽) 기준 총 100만 TEU를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22일 HMM에 따르면, 이달 3일 부산항에서 국내 수출물량 등화물 2803TEU를 싣고 떠난 2만4000TEU급 컨테이너 5호선 ‘HMM 그단스크(Gdansk)’ 호가 21일 중국 옌텐(Yantian)항에서 만선으로 출항하며 누적 운송량이 총 101만5563TEU를 기록했다. 그단스크 호는 다음 달 21일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01만5563TEU의 컨테이너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 길이는 약 6100km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유럽 노선에 투입된 HMM 1-12호선 선박은 헤드 홀 기준 총 52항차 중 50항차를 만선으로 출항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나머지 2항차는 99%를 선적했다. 백 홀(back-haul·유럽이나 북미에서 되돌아오는 화물)을 포함하면 총 97항차를 운항했으며, 누적 운송량은 총 186만1633TEU에 이른다.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HMM은 세계 곳곳으로 국적 기업 수출입화물의 차질 없는 운송과 대한민국 해운 재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وری 기자 we1228@

MZ세대 사로잡은 삼성 ‘반도체 랜선 투어’

유튜브 누적조회 80만회 돌파

삼성전자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해 만든 삼성전자 반도체 영상이 80만 회가 넘는 누적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몇 개월에 걸쳐 자사 유튜브 채널 ‘삼성전자 반도체’에 ‘반도체 사업장 랜선 투어’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영상은 총 4회분으로, 국내 반도체 캠퍼스(공장) 소개와 함께 생산과 배송 과정을 포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드론 타고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훑어보기’ 편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캠퍼스를 비롯해 반도체 연구와 생산의 중심인 화성 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복합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산실인 화성·기흥의 압도적인 규모와 차세대 초미세공정 중심의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다.

‘드론 레이싱’ 편은 화성 캠퍼스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둘러보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스릴 넘치게 담았다. 뮤직비디오 형태의 영상도 선보였다. 반도체를 의미하는 ‘매직스톤(Magic Stone)’ 편에서는 최근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래퍼 윈슈타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윈슈타인은 노래를 통해 삼성전자 회사 내 건강센터와 병원, 수영장, 식당 등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사내 복지시설 등을 소개했다. 노وری 기자 we1228@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美 흥행’ 8월 판매량 작년보다 2배 늘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미국 친환경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었다.

22일 현대차·기아 미국법인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두 회사는 현지에서 총 11만 5184대를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체 판매가 소폭(1.3%) 감소했으나 친환경차 판매(8312대)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차의 8월 친환경차 판매(5817대)는 작년 같은 기간(1684대)보다 245.4% 급증했다. 기아 역시 2495대를 판매해 지난해 8월(2020대)보다 23.5% 증가했다.

전체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주도했다. 투싼 HEV가 1965대를 기록했고, 니로 HEV가 1073대에 달했다. 여기에 순수 전기차(EV)도 힘을 보탰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여론 등 돌리고 국감 불려가고... 카카오 '시련의 계절'

상생카드 꺼냈지만... "면피용 불과 골목상권 침탈 중지해야"
공정위, M&A 거래금액까지 심사·웹 소설 저작권 제재 착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정부 규제를 받은 카카오가 상생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난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위기가 지속하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추석 연휴 직전인 13~14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계열사 중 골목상권 논란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고 배달 중개 서비스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또 다른 서비스도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생안에도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소상공인이 연결된 플랫폼 생태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의 상생안

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두고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연말부터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까지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어서 무분별한 확장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판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이런 가운데 김범수 의장은 다음 달 5

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신고누락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앞서 2018년에도 포털의 뉴스 편집 논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이 출시할 당시에는 혁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 체제를 가져가더니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으로 변질됐다"며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행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준 기자 tiatio@

KT, 빨라지는 'M&A 시계' 디지코 가속도

구현모 대표 탈퇴에 1兆 투자 데이터·AI 오디오 플랫폼 공략 그룹 성장 이끌 전담조직 꾸려

KT의 탈퇴 '디지코'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잇따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 데 이어 전담 조직까지 꾸렸다. 수장인 구현모 KT 대표 역시 지속적인 M&A 의지를 드러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KT와 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탈퇴 분야에서 1조여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특히 이달 들어 M&A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앞서 8일 KT는 말레이시아의 글로벌데이터 전문기업 엡실론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T가 이처럼 대규모 M&A에 나선 것은 10여 년 만이다. 글로벌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72조 원이며 2025년까지 40%가량 성장해 1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엡실론 인수를 통해 글로벌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과 고객을 기존의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들 뒤에는 KT그룹 미디어 계열사 지니뮤직이 464억 원을 투자해 '밀리의 서재' 지분 38.6%를 인수하고 1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지니뮤직은 국내 구독형 전자책 1위 기업인 밀리의 서재를 전격 인수하며 국내 최고의 'AI 오디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T는 M&A 전담 조직도 꾸렸다. 특히 신설 조직인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을 CEO 직속으로 편제했다. 이 조직은 △그룹 경영 및 사업전략 △국내외 전략투자 △외부 제휴·협력 등 기능을 통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룹 성장을 이끈다. 또 주요 그룹사의 기업공개(IPO) 추진과 투자 유치 등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경림 전 현대

자동차 부사장을 부문장(사장)으로 선임했다. 윤 사장은 그간 KT에서 미디어본부장,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글로벌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KT의 미래성장을 이끈 경험이 있다.

구현모 대표의 M&A 의지도 뚜렷해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다. 구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소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M&A 기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분야의 기업을 M&A로 고려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구 대표의 발언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M&A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 대표는 지난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M&A 전문가로서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조적인 준비는 마쳤고 내년 중 몇 가지 그림이 공개될 것"이라며 이 같은 속내를 일찌감치 드러낸 바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손짓·음성으로 음악 재생, 프로야구 시청 LG유플러스는 자사 홈IoT 서비스 'U+스마트홈 구글패키지'의 상품 기능과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편으로 손짓과 음성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프로야구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모델이 'U+스마트홈 구글 패키지'를 알리는 모습.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불편함 없앤 랩스커트 디자인, 주요 백화점에 납품"

인터뷰

장서우 바이서우 대표

장서우 바이서우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공대생이다. 그는 비전공자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의류 업계에서 바이서우를 랩원피스 전문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주변에선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의류 브랜드를 창업하는 것을 두고 만류하기도 했지만, 장 대표는 꿈을 찾아 랩원피스계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서우 대표는 22일 여의도 더현대서울 바이서우 팝업스토어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제 체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피스를 즐겨 입다가 랩원피스에 관심을 두게 됐다"며 "바이서우는 기존 랩원피스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랩원피스가 초기 유행하던 시기엔 보행시 가슴과 다리 등이 벌어지는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바이서우는 패턴 절개 수를 늘리고 광폭 원단 사용을 통해 노출을 없앴다. 대신 장 대표는 여성들의 실루엣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디자인을 더했다고 한다. 결과물은 바이서우의 메인 제품인 시그니처랩 원피스다.

인터뷰를 시작한 시점에는 여느 디자인



패턴 절개 수 늘려 노출 없애 안정된 대기업 대신 창업 도전 청년사관학교서 브랜드 확립

너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창업 전 행보는 의외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LG디스플레이 엔지니어파트, 경영지원그룹에서 직장생활을 했다고 한다. 바이서우 창업은 안정된 대기업 직장생활이 아닌 좋아하는 도전을 한 셈이다.

장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반의 블로그 마켓을 하면서 회사원 월급만큼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며 "2018년 창업보육센터, 2019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이후 '나의 브랜드를 더 탄탄하게 만들자'는 열망이 생겼고, 현재의 바이서우의 정체성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가능성은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국내 대기업으로 거래처 확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과거 직장 생활했던 경험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뒷받침했고, 이는 바이서우의 차별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창업 초기의 패션 업체는 비즈니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디자이너 전공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홍보·판매·거래처 확보 등등 면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창업 4년 차인 바이서우는 비즈니스 부분에선 강한 모습이었다. 다만 장 대표 스스로 비 디자이너 출신 의류 브랜드 오픈이라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장서우 대표는 "디자이너로서 역량도 지속해서 키우고 있다"며 "패션 전문가로부터 의류 패턴링 교육도 받고 있으며 한국 패션협회에서 주최하는 트렌드페어, K패션 오디션 등에 참가하며 바이서우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패션을 위한 공부는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랩원피스가 어필할 수 있는 국가로 수출 준비가 이상 없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서우 디자인 색을 입힌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고종민 기자 jim@

게임 빅3, 구글·애플 앱 마켓에 3년간 수수료 3조6000억 지급

국힘, 국부유출 논란에 "글로벌 진출 위해 필수"

국내 주요 게임사가 토종 앱마켓을 외면해 콘텐츠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가 비싼 해외 앱마켓 편중으로 연간 1조 원 규모의 막대한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게임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앱마켓 출시는 필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앱마켓의 게임 콘텐츠 입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3N)이 출시한 모바일게임 53종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는 모두 입점해 있는 반면, 국내 앱마켓 입점은 7종에 불과했다.

게임사별로 엔씨소프트는 11개의 모바일게임 중 윈스토어, 갤럭시스토어에 각각 1개씩 출시했다. 넷마블은 27개 모바일게임 중 윈스토어에만 2개를 출시한 반면, 갤럭시스토어에는 전혀 출시하지 않았다. 넥슨은 15개의 모바일게임을 출시해 윈스토어 3개, 갤럭시스토어 1개씩 입점했다.

특히 3N이 국내 앱마켓에 출시한 게임 7종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30위권 안에 든 게임은 리니지M, 바람의나라:연, 피파모바일4M 등 3종에 불과하다. 각사의 최신작은 국내 앱마켓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N이 해외 앱마켓 이용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영식 의원은 "모바일게임은 대표적인 앱마켓 콘텐츠임에도 3N 게임 대부분이 K-앱마켓에 입점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앱마켓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앱마켓 시장이 10년 이상 구글과 애플에 종속된 데는 3N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출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 해외 국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 앱스토어는 국내 다운로드만 한정돼 있다. 글로벌 시장에 론칭하기 위한 홍보 효과가 커 높은 수수료에도 해외 앱마켓 출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의 높은 점유율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모바일콘텐츠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88%에 달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점유율 지표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외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은 큰 손해를 불러온다"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광고 효과까지 커 해외 앱마켓으로 집중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준 기자 tiatio@

가구회사 인수·리빙 전문관... 인테리어에 꽃힌 백화점

롯데, 의왕 타임빌라스 인근 두번째 리빙 전문관 오픈 예정
인테리어 시장 작년 41.5조 “가구는 직접 봐야” 집객 효과 커
신세계, 생활 전문관 리뉴얼... 현대 ‘이케아 스튜디오’ 운영

백화점업체가 가구·인테리어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까사미아를, 현대백화점이 리바트와 현대 L&C를 보유한다 이어 롯데도 한샘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리빙 시장을 놓고 백화점 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처음으로 가구 전문관 ‘메종 동부산’을 내놓은 롯데쇼핑이 경기도 의왕 타임빌라스 인근에 2번째 가구 전문관을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쇼핑, 타임빌라스 인근 리빙전문관= 22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 백운호수에 신규 개관한 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바로 옆 부지에 대규모 리빙전문관을 건립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6월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선보인 ‘메종동부산’과 유사한 전문관으로 명칭 역시 ‘메종’에 지역명이나 타임빌라스 등을 넣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메종동부산’은 지난 6월 롯데쇼핑이 선보인 첫 리빙전문관이다.

의왕 리빙전문관은 메종동부산 모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메종동부산은 영업면적 규모가 1만3520㎡(4090평)의 3층 단독 건물로 도심형 아웃렛 규모의 리빙 전문관이다. 프리미엄 수입 가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 다이슨을 비롯해 1~2층에는 한샘디자인파크를 2960㎡(896평)의 대규모로 입점시켰다. 의왕 리빙전문관 역시 최근 인수에 성공한 한샘 브랜드를 크게 입점시켜 시너지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쇼핑은 이달 초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2595억 원을 출자하고 한샘 지분 인수 참여를 확정받았다. 이어 17일에는 롯데하이마트도 500억 원을 출자했다. 우선 한샘의 운영은 IMM PE가 맡지만 롯데쇼핑과 전략적 파트너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IMM PE가 향후 한샘을 되팔 경우 롯데가 완전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열렸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타임빌라스 인근에 메종동부산과 비슷한 가구 전문관으로 확정됐다”면서 “완공까지는 1~2년 가량이 걸



롯데 리빙 전문관 ‘메종동부산’.

릴 것”이라고 말했다.

◇홈인테리어 시장 10년새 2배 성장=롯데쇼핑이 리빙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은 2010년 19조4000억 원에 이어 2015년 28조4000억 원으로 성장한 후 지난해 41조5000억 원으로 커졌다.

롯데쇼핑은 한샘과 협업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공간 기획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샘이 스마트홈과 렌탈사업,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는 만큼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계열사인 롯데하이마트, 롯데건설 등과 함께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미 가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인수해 시장 선점에 나선 상태다. 신세계그룹은 까사미아를, 현대백화점은 리바트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자재 전문 업체 한화L&C를 인수해 현대 L&C로 사명을 바꾸기도 한 현대는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유통과 패션 부문과 함께 그룹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샘은 1970년 설립된 국내 가구·인테리어 업체 1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2조674억 원의 매출로 3년 만에 2조 원대를 기록한 후 올해 상반기에도 1조1217억 원의 매출로 작년에 이어 연속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리바트는 올 상반기 6840억 원의 매출로 업계 2위로 평가받는다.

◇“가구는 직접 보고 구매” 집객 효과= 이미 백화점들은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수단으로 가구 및 인테리어를 활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높아 오프라인 집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구는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면서 “집객에 대한 고민이 인테리어 업체 입점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2019년 11월 강남점에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을 열었고, 8월에는 동탄점에 2호점을 출점했다. 올해 6월에는 동부산점에 첫 리빙 전문관 ‘메종 동부산’을 오픈했다. 한샘과도 중동점과 울산점 등에 한샘리하우스와 한샘디자인파크 등의 매장을 선보이며 손발을 맞춰왔다. 올해도 상인점과 영등포점, 건대점, 수원점 등에도 한샘 협업 사업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홈퍼니싱 컨설팅 서비스인 ‘리빙 컨시어지’를 선보이고, 전문가가 가구부터 가전, 조명, 패브릭 등 여러 홈퍼니싱 브랜드들을 컨설팅한다. 타임스퀘어점은 아예 리뉴얼을 통해 건물 한 층을 생활전문관으로 꾸려 운영 중이다. 경기점은 올해 생활전문관을 리뉴얼해 체험형 콘텐츠를 가득 채웠다.

현대백화점도 무역센터점에 이탈리아 ‘까시나’, 프랑스 ‘리네로제’, 네덜란드 ‘모오이’ 등 세계 정상급 리빙 브랜드를 꾸준히 선보이며 리빙을 강화하고 있고, 미아점에는 그룹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운영하는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을, 천호점과 디큐브시티에는 이케아가 운영하는 도심형 매장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남주현 기자 jooh@



화장품 ‘새벽배송’ 인기 SSG닷컴 취급상품 두배로

SSG닷컴이 새벽배송을 통해 취급하는 뷰티 상품 라인업을 두 달 만에 확대한다. 지난 7월 중순 김포에 위치한 온라인 스토어 ‘네오(NE.O)’에 인기 화장품을 입점한 이후 관련 주문이 크게 늘어나서다.

SSG닷컴은 새벽배송에서 주문 가능한 화장품 브랜드를 확대하고 취급 상품을 기존보다 2배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SSG닷컴 새벽배송에서 주문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수는 기존 49개에서 60개로 늘어났다. 상품 수(SKU)도 600여 종까지 늘어 론칭 초기인 지난 7월 300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증가했다. 가성비 면에서 우수한 매스티지(Masstige) 브랜드는 물론,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도 입점해 고객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혔다.

SSG닷컴은 새벽배송을 통한 화장품 주문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추가 입점을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뷰티 새벽배송 개시 후 한 달 동안(2021년 7월 15일~8월 13일) 관련 매출은 직전 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누와 샴푸 등 생필품 위주였던 상품 구색이 스킨·바디케어, 메이크업 소품, 남성 화장품까지 확대되자 즉각적인 고객 반응이 있었다. 기존 새벽배송 장보기 상품과 마찬가지로 전날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착한다는 서비스 특성 역시 주 고객층인 30대 여성에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SSG닷컴은 고객 반응을 살펴 뷰티 상품 구색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 시대, 필수 가전 된 전기오븐

코로나19 장기화가 필수 가전까지 바뀌었다. 지난해 감염병 확산 이후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의류관리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의류관리기에 이어 ‘홈콕’, ‘홈카페’ 트렌드가 확산하며 전기 오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월드 코로나 시대 전기 오븐은 더 이상 틈새 가전이 아니다.

22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기오븐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7% 늘었다. 지난해 전체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 증가했던 것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사진>

전자랜드 올해 판매량 137% ↑ 집밥 인기에 다양한 조리법 각광 의류관리기 시장 경쟁도 치열

전기오븐 약진의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다. 지난해 ‘홈콕’, ‘홈카페’, ‘가정간편식’이 트렌드로 부상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집밥이 크게 늘어났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좀 더 다채로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오븐 조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전기오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에어프라이어 조리는 수분을 건조시키므로 홈베이킹 등 촉촉함이 필요한 일부 요리법에서는 오븐 조리가 더욱 적합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기능의 업그레이드도 판매 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엔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의 기능을 포함한 ‘올인원’ 전기오븐이 등장했다. 다기능 전기오븐은 하나의 제품으로 오븐 조리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류관리기는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류관리기는 2011년 LG전자가 스타일러를 출시하며 하나의 제품이 시장 자체로 성장한 케이스다. 지난해 의류관리기 시장 규모는 연간 60만 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30만 대)에 비하면 2배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해지며 의류관리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하이마트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의류관리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5% 늘었다.

의류관리기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



는 양상이다. LG전자가 시장의 약 70%를 점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가전 맞수인 삼성전자가 ‘삼성 비스포크(BESPOKE) 에어드레서’를 내놓으며 최근 의류관리기 점유율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한편, 가전양판점 업체는 에어컨을 비롯한 계절 가전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 지난해보다 5.58% 늘어난 1조10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보다 13.42% 증가한 634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 감소에도 온라인 비중 상승에 힘입어 전체 매출액 규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안마의자 체험해 보세요”

롯데백화점이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판매 중이다. ‘바디프렌드’는 롯데백화점 18개 점에 입점돼 있어 다양한 안마의자를 체험과 상담, 구매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바디프렌드 ‘더파라오’는 사용자의 체형과 개인별 압력에 최적화된 안마를 제공하는 최상위 모델이고, 그 외 ‘오쌘’, ‘파나소닉’의 안마의자 제품도 체험 후 구매가 가능하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스포츠 패션 힘주는 CJ온스타일

팀버랜드·머렐·에드하디 영입

CJ온스타일이 하반기 스포츠 패션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CJ온스타일은 캠핑, 골프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MZ 세대를 겨냥해 ‘팀버랜드’, ‘머렐’, ‘에드하디’ 등 대형 아웃도어 브랜드를 단독 영입한다고 22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23일 오후 7시 35분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팀버랜드’를 홈쇼핑 업계 단독으로 론칭한다. 가을 신제품인 플리스 재킷과 플리스 베스트, 아웃도어 티셔츠, 스니커즈 등 총 5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CJ온스타일은 송강을 모델로 기용한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도 독점 운영한다. 다음 달 중 머렐의 플리스 재킷, 헤비 구스다운, 등산화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골프웨어 품목도 확대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한 글로벌 브랜드 ‘에드하디’의 골프 라인을 단독 판매한다. 에드하디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한스타일 매장과 SI빌리지에서 동시 판매되는 제품으로, 에드하디만의 아트워크를 활용한 가성비 비

는 트렌디한 골프웨어를 마련했다. 10월 중순에는 배우 오윤아가 모델로 활동 중인 골프웨어 브랜드 ‘아다바트’의 단독 아이템도 선보인다.

CJ온스타일은 하반기 기존 운영 중인 스포츠 라이선스 브랜드 ‘장 미셸 바스키아’와 ‘에디바우어’의 모바일 상품을 강화한다. 장 미셸 바스키아는 모바일 전용 필드 라인 상품을 개발하고, 에디바우어는 본사 직수입 상품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라코람, 니트류 등을 온라인 편집숍 ‘더블유 컨셉’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 브랜드를 비롯해 약 35개 스포츠 브랜드의 160여 개 품목을 선보여 올해 말까지 1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명근 CJ온스타일 스포츠팀 팀장은 “하반기 아웃도어에 꽃힌 MZ 세대들을 위해 메가 브랜드부터 SNS 핫 아이템까지 다양한 스포츠 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가장 트렌디한 스포츠 상품을 발 빠르게 확보해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아웃도어 패션 채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국방은 든든하게 교육은 든든하게
**LG유플러스가 군자녀에게
 스마트 학습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마트패드와 초등학생 전용 교육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꿈 옆에 LG유플러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위탁개발생산〉

‘K바이오’ 새 먹거리 된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떠오른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앞다퉀 뛰어들고 있다. 높은 성장성 덕분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은 생산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요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CDMO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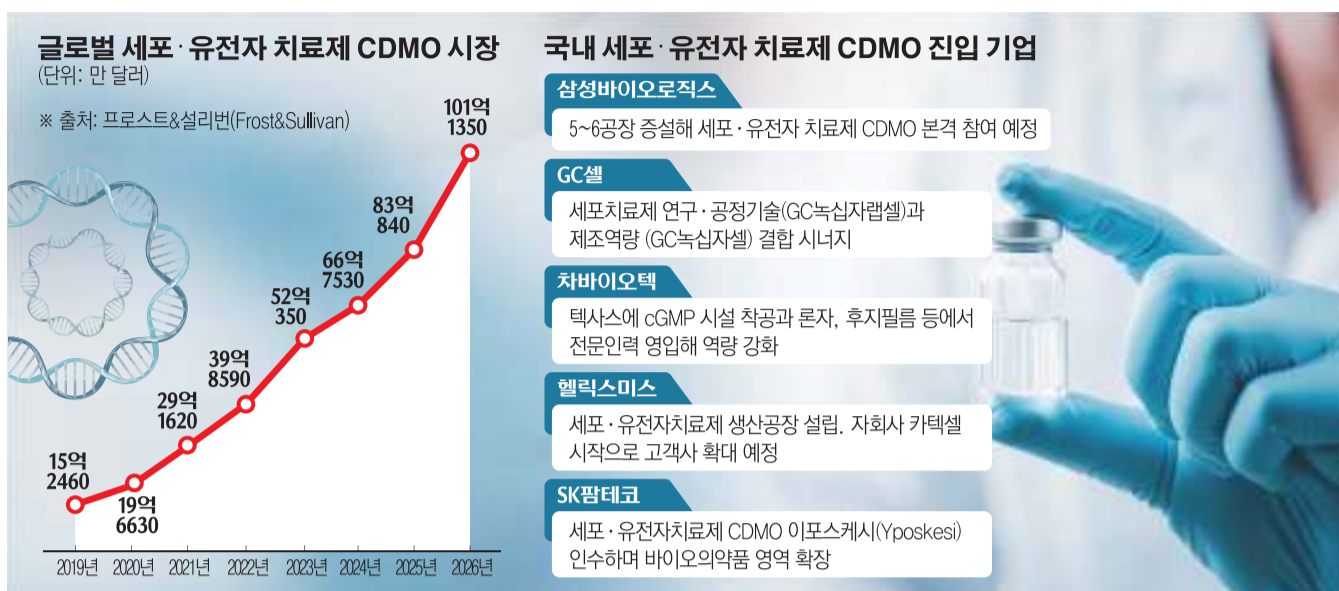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래 시장 투자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기회라고 생각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에 강점이 있고, 국내 시장이 작아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탁업체로부터 세포주를 받아 단순 생산하면 위탁생산(CMO), 위탁업체가 세포주를 만든 후 생산을 하면 위탁개발(CDO)로 구분된다. CDMO는 ‘약품의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은 2019년 15억2460만 달러(약 1조7790억 원)에서 2026년 101억1350만 달러(약 11조8014억 원)로 연평균 31% 성장에 예상된다.

세포·유전자치료제는 1세대 재조합단백질, 2세대 항체치료제에 이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꼽힌다.

보통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임상·개발·생산 등 전 단계에서 비용이나 역량, 자원 부족으로 아웃소싱 파트너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분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전체 제품 중 약 50% 이상이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되지만, 최근 개발



2026년 글로벌 시장규모 101억 달러 연평균 31% 성장 예상 헬릭스미스, 당뇨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3상 진행 중 차바이오텍·지씨셀도 출사표... SK팜테코, 프랑스 기업 인수 시장 선도 스위스 론자 등에 비해 인프라 약해 전문성 확보 시급

업체가 직접 CDMO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헬릭스미스·차바이오텍 등 뛰어들어= 25년간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해온 헬릭스미스는 당뇨를 타겟하는 혁신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직접 생산에도 뛰어들어 2022년 이후 연 110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의 4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제희 헬릭스미스 전략지원본부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사들이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공정 개발, 생산 역량 등이 필요하다 보니 CDMO 사업 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임상 진

행 비용과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규모 있는 고객 유치를 위해 CDMO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카텍셀이 1호 고객이고 2~3개 외부 기업과도 논의 중”이라며 “국내 바이오 업체 40곳도 잠재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라도 잘 알려진 차바이오텍도 세포치료제 분야 CDMO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텍사스에 글로벌 수준 제조설비를 갖춘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착공을 시작해 연말 완공 예정이다.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을 선도하는 스

위스 론자, 일본 후지필름등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풍부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임상경험과 제품화에 필수적인 생산 기술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CDMO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2024년 완공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GMP시설과 연계해 글로벌 CDMO기업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랩셀 합병으로 탄생한 GC Cell(지씨셀)도 세포치료제 CDMO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미 GC녹십자랩셀은 NK세포치료제 등 세포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GC녹십자랩셀은 국내 최대 규모 세포치료제 제조시설(약 6300평)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제조 시설 및 제조 경험, 공정기술을 통해 CDMO 사업영역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전문성 확보·과감한 투자 필요=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

는 기업도 있다. 합성의약품 CMO인 SK팜테코는 지난 3월 프랑스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해 생산공장을 증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항체치료제 CMO에 주력해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5~6공장을 건설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삼성그룹은 향후 반도체·바이오·차세대 통신 등 주력산업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충분한 시장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점차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위스 론자나 미국 카탈란트 등 글로벌 CDMO 회사들에 비해 인프라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은 유전자·세포 치료제 CDMO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며 공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고비용인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에서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유전자·세포 치료제 CDMO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경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웃소싱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외시장이 타깃이라면 해외에 시설을 짓는 등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美 FDA, 삼성바이오에피스 황반변성 바이오시밀러 허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루센티스(Lucentis)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BYOOVIZTM, 프로젝트명 SB11, 성분명 라니비주맙)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매 허가는 지난해 11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서(BLA)의 사전 검토 완료 후 본격적인 서류 심사에 착수된 지 약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바이우비즈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은 데 이어 미국 시장에서도 첫 번째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 허가를 획득하게 됐다.

루센티스는 로슈(Roche)와 노바티스(Novartis)가 판매하는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로, 지난 해 글로벌 매출은 약 4조 원에 달했다.

고환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당사 첫 안과 질환 치료제의 판매 허가를 받아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넨텍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는 제넨텍의 해당 SPC(의약품 추가보호 증명,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만료 전인 내년 6월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외 지역에서는 제넨텍의 SPC 만료 이후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美 진출 희비 갈린 K보톡스

휴젤 ‘레티보’ 내년 품목 허가 ‘3년 내 현지 톱3’ 목표 휴온스글로벌 ‘휴톡스’ 올해 안에 임상 1상 신청 계획 메디톡스, 앨러간과 기술 이전 계약 종료에 진출 제동

국내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톡스) 업체가 미국 진출에 문을 두드린다. 국내 보톡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이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미국의 앨러간, 프랑스 입센, 독일 멀츠 등 글로벌 3사가 점유율 97%를 장악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에스텍 소사이어티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북미 보툴리눔 독소 시장 규모는 약 32억 달러로 추정된다. 전 세계 시장은 연평균 7~9%씩 성장해 2026년에는 약 8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보톡스 업체 1위인 휴젤은 내년도 ‘레티보(수출명)’의 품목허가를 받고 미국 진출을 본격화한다. 휴젤은 2015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임상 3상에 돌입했고, 지난 3월 레티보 50유닛(Unit)과 100유닛(Unit)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6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품목허가 심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받아 내년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

정이다. 지난 8월에는 FDA에서 cGMP 실사를 진행해 레티보의 생산을 담당하는 휴젤 제2공장 ‘거두공장’의 제조시설 및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휴젤은 심사 종료 후 FDA에서 요구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대응 서류 제출을 완료해 무리 없이 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FDA와 ‘레티보(수출명)’의 품목허가 심사에 대한 중간점검회의(Mid-cycle meeting)를 진행했다.

휴젤 측은 “내년 품목허가 취득 후에는 2018년 설립된 휴젤의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 현지 시장 마케팅 및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현지 시장 진출로 3년 내 현지 톱3 브랜드로 올라서겠다”라고 말했다.

휴온스글로벌은 2024년 미국 시장 진출을 내다보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안에 FDA에 ‘휴톡스(수출명)’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임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듬해 브랜드명을 바꿔



휴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 ‘보툴렉스’.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휴톡스의 현지 임상 및 허가, 마케팅, 영업은 지난 4월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맺은 미국 아쿠아비트홀딩스(AQUAVIT HOLDINGS LLC.)가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뒀던 메디톡스는 미국 보톡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4년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현 에브비)에 액상형 보톡스를 기술 이전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권을 부여했는데 앨러간이 최근 기술 이전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 종료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던 메디톡스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최근 액상형 보톡스에 대한 임상 3상을 마무리한 앨러간은 이후 품목허가, 상업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는 모두 메디톡스의 몫이 됐다.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추진과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할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을지 등 미국 진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메디톡스 측은 “앨러간에서 임상 자료 등을 넘겨받아 예정대로 미국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입지감치 진출한 대웅제약은 보톡스 ‘주보(수출명)’가 하반기에도 수출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메디톡스와 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지난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21개월 간 주보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1심 판결에 따라 미국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앨러간이 3자간 합의 계약을 맺으면서 1심 판결이 무효화됐고 소송 리스크 해소로 주보 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는 3자간 합의로 주춤했던 미국 수출 재개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라며 “미용뿐 아니라 안검하수, 탈모 등 여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적응증을 넓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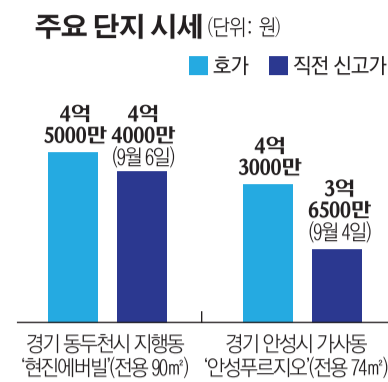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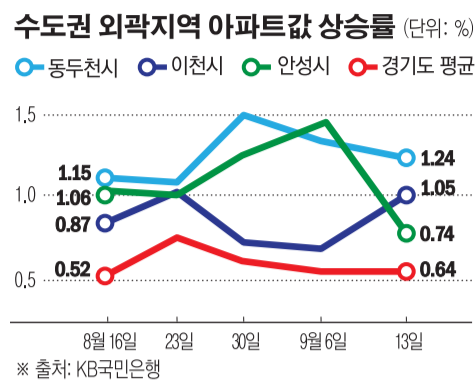
박미선 기자 only@

규제지역 지정도 소용 없네... 수도권 외곽까지 '불장'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집값 '키맛추기'로 수도권 외곽지역 집값이 핵심지를 따라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까지 '불장'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현진에버빌 전용면적 90㎡형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는 최고 4억5000만 원이다. 같은 평형은 6일 4억4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는 4월 거래된 3억4200만 원보다 5개월 새 98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송내동 송내주공4단지 전용 59㎡형의 시세는 3억2000만 원이다. 지난 4월 거래된 3억 원보다 2000만 원 더 오른 금액에 호가를 형성했다. 경기 남부 외곽지역인 안성시 아파트값도 급등했다. 안성시 공도읍 안성공도우미린더퍼스트 전용 59㎡형은 16일 3억7000

동두천 '현진에버빌' 전용 90㎡ 4.4억 거래, 5개월 새 1억 켜증 안성시 아파트값도 연일 신고가 '비규제' 이천·여주시도 상승세 전문가 "정부 규제에도 시장 내성 당분간 집값 키맛추기 현상 지속"

만에 거래됐다. 지난달 기록한 신고가(3억5000만 원)를 재차 경신했다. 가사동 안성푸르지오 전용 74㎡형은 이날 기준 최고 4억3000만 원을 호가한다. 지난 4월 3억6500만 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0일 만에 6500만 원 더 오른 셈이다. 이렇듯 최근 수도권 외곽지역 아파트값은 천장 없이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13일 기준) 수도권 경기 평택시 아파트값은 평균 1.43% 올랐다. 이어 동



0.55% 상승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동두천시는 1.24% 상승률을 보이며 큰 격차를 나타냈다. 오히려 규제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이천시와 여주시 등 외곽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도 포착됐다. 여주시 현암동 e편한세상여주 전용 84㎡형은 12일 직전 실거래가보다 1100만 원 오른 3억 16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주 1.05% 올라 전주(0.68%)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에 내성이 생겨 추가 규제에도 집값은 우상향하고 있다. 여기에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난까지 겹쳐 서울과 경기 핵심지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은 당분간 외곽지역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금리가 낮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두천(1.24%)과 오산(1.12%), 화성(1.1%), 이천(1.05%) 등 외곽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오산이 6.75% 올라 경기 지역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안성(5.95%)과 평택(5.0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동두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급등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 직후인 지난달 28일

지행동 송내주공1단지 전용 75㎡형은 직전 실거래가보다 1000만 원 오른 3억 6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돼 주택 매수세가 꺾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두천시에선 정반대로 집값이 더 오른 것이다. 동두천시 아파트값 상승세는 서울과 경기-인천 전체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서울은 지난주 0.38% 오르는데 그쳤다.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0.64%와

르포 / 집값 상승률 2주째 '서울 1위' 강서구

“마곡 개발 호재에 호가 ‘억’... 매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작년에 13억 원 하던 게 올해 들어 17억~18억 원으로 올랐어요. 개발 호재가 많으니 집주인들도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죠. 지금은 높은 호가의 매물만 일부 남은 상황이에요.” 서울 강서구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파트 공급마저 대폭 줄면서 매물 잠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강서구의 공인중개업소 분위기는 대체로 한산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향 가격 매수를 문의하거나 싸게 나온 급매물이 있는지 묻고 이내 발길을 돌렸다. 가끔 올리는 전화기 너머로는 매도 호가를 높여 팔겠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현재 강서구의 집값 상승세는 정부의

“저평가” 인식 실수요·투자자 몰려 11주 연속 오름세 집주인들 ‘배짱 호가’ 정부 규제 탓 ‘매물 잠금’ 심화

잇따른 규제에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3일 기준) 강서구 아파트값은 0.29% 올라 2주 연속 서울 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서구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0.07%) 이후 11주 연속으로 한 주도 빠짐없이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강서구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에는 각종 개발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곡지구에는 총사업비 3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이 7월부터 공사

에 들어갔다. 컨벤션센터·호텔·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마이스 복합단지 인근에는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의도 3분의 1 규모 면적으로 LG전자 등 9개 계열사 연구개발(R&D) 인력 2만 2000명이 입주해 있다. 개발 호재가 몰리며 인근 가양·화곡동의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마곡동 '마곡엠밸리 6단지'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달 27일 18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4월 16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종전 최고가보다 2억2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호가는 20억~2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가양동 B공인 관계자는 “마곡지구와 인접한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강서구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매도 호가를 높여 부지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강화한 정부의 세금 규제 때문에 매물 잠금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아파트 매물은 1542건으로, 석 달 전(2136건)보다 27.9% 줄었다. 1년 전(305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글/사진 이동욱 기자 toto@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개발사업 공사현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이 적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 매도자들이 배짱 호가 매물을 내놓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량 급감 속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강서구 아파트값이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아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넷째 주엔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300여 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9개 단지 4383가구(일반분양 2941가구)가 청약 시장에 공급된다. 서울 중구 목정동 '힐스테이트 남산',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 빌리브 에버인

시티',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10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평택시 이충동 '고덕 아펠리스 씨밋파크' 오피스텔과 성남시 대장동 '판교 SK 뷰(VIEW) 테라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 하늘도시 한신 더휴 2차'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을 시작하는 단지는 5곳이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과 전남 광양시 황금동 '더샵 광양 배이센트'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9개 단지에선 24일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와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셀',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제 반도유보라' 등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빌라 매매가 올들어 4.7% 급등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

아파트에 이어 빌라 매매가마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대로면 전국 빌라 매매가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연립주택 매매가는 전국 평균 4.7% 상승했다. 올해 초만 해도 전국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는 2억1046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엔 2억2005만 원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빌라 시장은 지난해에도 연간 기준 12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6.5%)을 기록한 바 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기록이 또 한 번 갈릴 가능성이 크다. 올해 1~8월 빌라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해(2.6%)를 웃돌고 있어서다. 빌라 가격 상승세는 비(非)수도권(0.6%)보다 수도권(4.1%)에서 더 거세다. 인천에선 올해 1~8월 매매가 상승률(5.4%)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3.4%)을 앞섰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각각 빌라 매매가가 2.8%, 6.0% 상승했다. 거래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선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앞서는 현상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22일까지 아파트가 412건 매매될 동안 빌라는 1189건 거래됐다. 이렇게 빌라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건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전셋값까지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도 빌라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등 재개발 초기 단계에 시가 참여하는 대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가 선정되면 서울에선 2015년 이후 6년 만에 신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다.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 즉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에서 빌라가 아파트 매매보다 많은 것은 시의 재개발 추진 정책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서울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곳은 역 단위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23 (목)	접수	서울	중구	목정동	힐스테이트남산 ♠ (~9/24)	
			경기	평택시	이충동	고덕아펠리스씨밋파크 ♣
				수원시	원천동	한화포레나수원원천 (~9/27)
9/24 (금)	오른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중앙역엘크루더퍼스트	
					동두천중앙역엘크루더퍼스트 ♣	
			양평군	강상면	양평우방아이유셀에코리버	
			여주시	교동	여주역센트레빌트리니티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디에스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셀
9/24 (금)	접수	경기	안성시	안흥동	이천빌리브에버인시티(1BL) 1순위	
					이천빌리브에버인시티(2BL) 1순위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하늘채리버뷰 1순위 (당해지역)
			안동시	풍산읍	안동역영무에다오피스텔 1순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	빌드원레베3차 1순위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24 (금)	발표	충북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탕정2-A15(국민임대) (~9/29)
						아산탕정2-A15(영구임대) (~9/29)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SKVIEW테라스 ♠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푸르지오파크몬트
				서구	경서동	경서북청리푸르지오트레시엘 ♣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한신더휴2차(공공분양)
				음성군	금왕읍	음성금성A2(국민임대)
				증평군	증평읍	증평송산A5(국민임대)
			전남	진천군	이월면	진천이월(국민임대)
						진천이월(영구임대)
				청주시	용암동	청주동남A3(국민임대)
9/25 (토)	계약	경기	광양시	마동	광양와우중흥S클래스 (~9/28)	
			광양시	황금동	더샵광양배이센트 (~9/30)	
9/25 (토)	계약	인천	평택시	이충동	고덕아펠리스씨밋파크 ♣	
			서구	경서동	경서북청리푸르지오트레시엘 ♣ (~9/30)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REPS

공수처·검찰 ‘고발사주’ 양 갈래 수사 이번 주 분수령

김용·손준성 등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압수물품 분석
주변 조사 마무리 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환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 갈래로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10일과 13일 김용 국민의힘

의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손 검사 등의 태블릿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김용→조성은’의 고발장·첨부자료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다음 주께 손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건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공수처는 주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윤

전 총장을 소환해 그동안 확인한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고소 사건을 배당받은 뒤 특수사건 전담인 4차장 산하 부서 검사들까지 파견해 9명(부장검사 포함)의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검 검찰부에서 확보한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자료를 포렌식하면서 ‘제보자’ 조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참관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모두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겼다.

다음 달 공수처는 출범 후 첫 국감을 치른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집중포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정치적 뇌관이 될 수 있는 큰 사건들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기에 부담스러운 검찰이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선 정국에는 검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무리라면 그간 사건 관할을 놓고 대립해오던 공수처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입건자와 적용 혐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양 기관의 수사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 수사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할머니와 함께하는 산책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 설명 없었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냐”

대법 “일반인, 약관·용어에 익숙지 않아 해지 예상 어려워”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통지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 사에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2015년 배달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 사는 첫 보험계약의 경우 특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계약은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륜자동차

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다.

A 씨는 보험사가 특약, 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보험사로부터 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약관규정에 대한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는지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첫 계약은 계약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 C 씨가 A 씨에게 ‘이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일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나머지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를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또 “A 씨로서는 이륜차 운전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고 보험인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해보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사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시 ‘창업생태계’ 4계단 상승한 16위

美 지능 280개 도시 조사

서울시는 미국 스타트업 지능(Genome)이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16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창업생태계 순위는 지난해 20위에서 네 계단 상승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서울의 강점으로 우수한 인재 파이프라인과 높은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을 꼽았다. 특히 서울은 연구실적·특허로 평가하는 ‘지식축적’ 분야에서는 글로벌 순위 4위를 달성했다.

현재 국내 11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중 9개사가 서울에 위

치하는 등 서울은 풍부한 기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청년 예비창업가 연간 1000팀을 선발 및 육성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업정책을 추진했다.

마포 서울창업허브, 홍릉 바이오허브, 양재 인공지능(AI)허브 등 권역별·산업별 생태계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제품화·네트워킹 등의 창업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1만3000여 개의 기업을 키워냈다.

박은평 기자 pepe@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돌입

내달 5일 상견례... 매주 1회씩 교섭 벌일 듯

삼성전자 노사가 내달 초 상견례를 열고 임금교섭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 실무진은 내달 5일 2021년도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열기로 했다. 최근 노사 실무진이 만나 일정을 협의한 결과다.

노사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한 번꼴로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 삼성전자노조는 지난달 말 회사에 임금·복지후생 협상 교섭요구서를 전달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다른 노조와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임한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수가 약 4500명으로 삼성전자 내 4개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노조가 사 측에 요구할 임금교섭 협상안 초안에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자사주(1인당 약 107만 원) 및 코로나19 격려금(1인당 약 350만 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이 포함

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총 7.5%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노사협의회 합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건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에 걸친 본교섭과 대표교섭의 결과다.

이 자리에선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 선언’도 발표했다.

삼성 계열사들에서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집단협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5개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1월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 노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거쳐 지난 10월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인명 구한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법원 “경찰 등 순직 비취보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22일 A 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1994년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실패 함께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A 씨의 유족은 2019년 7월 A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위패 봉안)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불허했다.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의 유족은 “보훈처에서 A 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다른 의사상자의 인정과 상관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 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취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가 있더라도 내용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열’ 보여드릴게요”

이투데이 초대석

뮤지컬 ‘풍월주’ 임진섭

신라시대 남자 기생 이야기 다뤄
꽃꽂이 외간내유형 주인공인 ‘열’
단순하게 멋있지만 한 인물 아닌
‘진심 보이는 주인공’ 연기하고파



뮤지컬 ‘풍월주’ 배우 임진섭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뮤지컬 ‘풍월주’의 시작은 2011년 CJ문화재단 신인 공연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선정이었다.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소극장 창작뮤지컬의 저력을 증명했다. 그런 ‘풍월주’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 새로운 얼굴로 가득 채워진 작품에 배우 임진섭이 주인공 ‘열’ 역으로 나선다.

“‘풍월주’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어요. 열 역할을 거친 선배들만 10명 가까이 돼요. 선배들만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임진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풍월주’에 캐스팅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풍월주’는 신라시대 남자 기생인 ‘풍월’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은 ‘운루’라는 섬에서 귀부인을 접대하는데, 이곳의 최고의 풍월은 ‘열’이다. 그의 친구이자 애뜻한 마음을 나눈 ‘사담’, 열에 집착하는 핏빛 개혁신주 ‘진성 여왕’의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남자 기생의 존재를 역사적 고증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스테프, 연출님, 작가님 등 많은 분이 열심히 찾아보셨대요. 테이블 작업을 하면서 조사한 것들을 프린터 한 뒤 일일이 이

해하면서 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열’이란 캐릭터는 외간내유의 전형이다. 강하고 꽃꽂이 모습에 가장 먼저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기꺼이 ‘운루’에 들어와 희생하고 있는 담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담 앞에만 가면 한없이 순수해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임진섭은 이 부분에 집중했다.

“그동안 정말 멋있는 열들이 많았어요. 그 열들이 기준이 됐고 일반화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욕심이지만, 멋스럽진 않아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열을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진섭은 그동안 해왔던 작품 속 캐릭터가 열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았다. 오히려 ‘명동로망스’ 장선호, ‘전설의 리틀 농구단’ 수현 등 자신이 만났던 캐릭터를 ‘열’에 이입하기 시작했

다. 그렇게 ‘멋있지만 한 열’이 아닌 ‘진심이 보이는 열’이 탄생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다고 합니다. 배우로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새로운 역할을 했을 때 ‘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풍월주’ 속 임진섭에게 도전적인 요소가 또 있었다. 다름 아닌 ‘춤’이다. 임진섭은 “춤을 잘 못 춘다”며 “안무 감독님이 보여주시는 춤을 따라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명동로망스’에서도 재롱만 피웠고,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선 군무였거든요. 독무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정말 많이 위축됐죠. 긴장감부터 연습해 오거든요. 제가 빛나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임하는 중이에요. 저는 춤이 아니어도 제가 틀린 부

분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캐릭터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빼려고 하죠.”

“‘풍월주’ 속 열은 사담, 진성 여왕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캐릭터다. 이에 따라 함께하는 배우들의 에너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물었다.

“운장과 진성 여왕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커요. 모두가 행복하지 못해 안쓰러지만요. 전성민 누나는 열의 사랑을 원하는 것 같다면, 임진민 누나의 진성 여왕은 열이라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진성 여왕들이에요. 담도 완전히 달라요. 준휘 형은 경력직 ‘담’이라서 그런지 안정적이네요. ‘이게 담이구나’를 생각하게 하죠. 황두현 형은 세 담 중엔 말의 무게가 가장 있는 것 같아요. 귀가 자연스레 가게 돼요. 윤석호는 21살인데 정말 잘해요. 제가 21살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 같아요. 짠 마음도 크게 오는 답이죠.”

임진섭은 열과 담의 관계를 ‘사랑’보다 ‘가족애’로 정의했다.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서로 육체적으로 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소중한 존재고 없어서 안 되는 당연한 사람이죠. 근데 진성과 열도 그래요. 서로 ‘너는 나야’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인물들이 서로를 자신으로 마주하고 있어요.”

임진섭은 11월 7일까지 열에 흠뻑 빠져살아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뮤지컬 작품으로 관객을 만난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세워놓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고 싶다고 했다.

“무대도 많이 하고 싶고 노래 앨범도 내고 싶어요. 연극, 드라마, 영화 모두 해보고 싶죠.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싶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상식
이현우 지음/한스미디어 펴냄/1만6800원



‘경알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던 도서 ‘모르면 호구 되는 경제상식’이 2021년 최신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금융, 재테크부터 트렌드, 시사상식까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상식들을 살뜰하게 한 권에 담아냈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낯선 경제 용어와 장황한 서술 때문에 ‘경제’라고 하면 진저리를 쳤을 독자들이라도 이 책만큼은 끝까지 완독할 수 있다.

저자는 개인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잡아먹는 자본에 무너지지 않고, 또 마냥 손해만 보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경제상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
요나스 요나손 지음/임호경 역음/
열린책들 펴냄/1만5800원



베스트셀러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장

편소설이 출간됐다.

요나손은 4편의 소설

로 전 세계에서 1600

만 부 이상 판매되며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작가다.

책의 내용은 이렇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빅토르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미술품 거래인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이혼한다. 또 장녀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케빈을 죽이려고 케냐 사바나에 데리고 가서 버린다. 케빈은 원주민 치유사 올레 음바티안의 구조를 받아 마사이 전사로 거듭난다.

책의 핵심 키워드는 ‘복수’와 ‘현대 미술’이다. 히틀러의 예술 탄압과 그로 인한 표현주의의 개화 등을 이해하며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재미

공감

즐거움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BRAVO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주부'가 당신의 마지막 직함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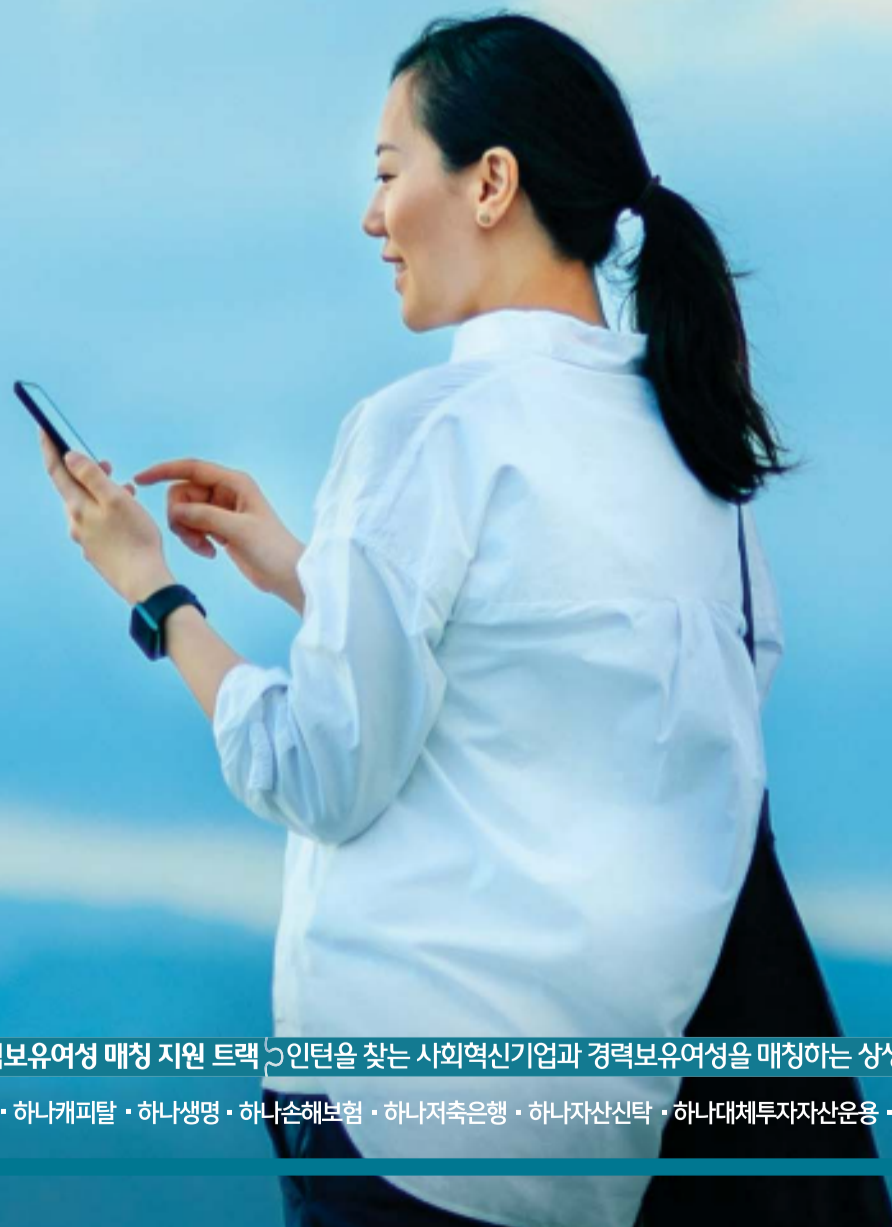
아내에서 다시 매니저로

엄마에서 다시 플래너로

경력이 지어준 이름을 되찾길 바라는

여성들의 다시 쓰는 이력서를 응원합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경력보유여성 매칭 지원 트랙 5인턴을 찾는 사회혁신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집값 기대감 여전, 추석 이후도 상승세 이어질 것”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풍부한 유동성·입주물량 감소·대선 등 상승 압력 요인 많아 GTX 노선 중심 과열, 사업지연 많아 장기 관점서 투자해야

“전문가들의 시장 분석과 인사이트 제공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임병철(사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부동산시장 분석 연구원으로서의 매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각종 통계 분석과 자문 등의 업무로 분주한 임 팀장을 만나 그가 20년 가까이 몸담은 부동산114의 강점과 추석 이후 주택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임 팀장이 부동산114에 입사한 2000년대 초반은 인터넷 확산 바람을 타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급성장하던 때다. 이전까지 부동산 정보는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정보 업체가 줄줄이 생겨나면서 손쉽게 정보 획득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부동산114도 1999년에 설립하며 이런 트렌드에 가세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 업체 대부분은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명맥을 유지하는 정보 업체는 현재 손에 꼽을 정도다. 부동산114는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과 함께

국내 3대 부동산 시세 조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점은 빅데이터였다.

부동산114는 설립 이후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주거용 통계와 상가, 상권,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쌓아 이를 콘텐츠화했다. 그는 “통계분석 솔루션(REPS)과 부동산 금융솔루션(K-Atlas), 분양 솔루션(RIS) 등 공공기관과 건설사, 금융기관,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솔루션이 강점”이라며 “내·외부 데이터베이스(DB)를 융합하고 분석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114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주간 통계를 매주 내놓는다. 대표적인 시장 통계 자료 지원은 물론 시장 분석이 담긴 보고서 생산, 세미나 및 공공기관 자문,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기획 등이 모두 임 팀장의 손을 거친다.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인 임 팀장은



추석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기저에 깔렸다”며 “전세·매매가격 상승이 공급 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가 당장 이를 안정화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풍부한 유동성과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대통령 선거, 전세시장 불안 등 상승 압력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

에 대해선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개통에 따른 파급력이 크겠지만,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착공 이후에도 예산 삭감 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가는 사례가 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틈새 주거상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非)아파트 청약시장이 수심,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임 팀장은 “과거에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관련 규제가 적어 수요가 급격히 몰린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붐을 타고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 수익률 하락 등으로 관심이 차츰 줄고, 열기도 식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선 “정약통장 납입액이 높거나 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경우 청약통장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이 크게 늘었고, 11월부터는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여기에 포함되는 무주택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기사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이광복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이광복 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96년부터 35년간 서울대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연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이달 27일부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이다.



SK, 서진우 중국사업담당 부회장 승진

서진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사업담당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SK그룹은 서진우 위원장을 중국 담당 부회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부회장은 기존 인재육성위원장 업무와 함께 중국 내 SK 관계사의 시너지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89년 SK에 입사한 서 부회장은 유공(현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을 거쳐 SK플래닛 최고경영자(CEO)를 맡았으며 SK차이나의 정보통신·신사업(G&I) CIC(사내독립기업) 사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주호(왼쪽)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이 손동연 사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김주호 기술부장 기계정비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김주호 기술부장(56)이 기계정비 분야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올해 선정된 11명을 포함해 1986년부터 현재까지 663명이

명장 타이틀을 얻었다. 김 기술부장까지 합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총 31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김 기술부장은 1985년 1월 입사해 중기계정비 및 시험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1999년 기계 가공 기능장 취득을 시작으로, 2016년 건설기계정비 기능장과 중

기계정비 분야 우수수련기술자 획득했고 그 이듬해엔 중기계정비 분야 인천시 미추홀 명장에 선정됐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에 선정, 인하대 건설기계공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김 기술부장은 “제 손을 거쳐 간 제품이 고객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스스로 기술 연마를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기술 비결을 제공,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기네스북 오른 1913년생 쌍둥이



세계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로 기네스북에 오른 일본의 스미야마 우메노(왼쪽)와 고다마고 우메 할머니.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두 자매 할머니가 이달 1일 107세 300일이 넘는 나이로 기네스북 ‘역대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와 ‘생존 최고령 여성 일란성 쌍둥이’가 됐다.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두 할머니는 1913년 11월 5일 쇼도시마에서 태어났다. 직전 기록 보유자는 역시 일본인인 나리타킨·가키에 긴 자매로, 107세 175일 나이로 해당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기네스월드레코드 홈페이지

교황 “장 수술 후 일부 성직자들 새 교황 선출 준비” 예수회 신부들과 대화서 자신 밀어내려는 보수파 비판

“내가 죽기를 바란 이들도” 고백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슬로바키아 방문 당시 예수회 신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밀어내려 한 교계 내 보수·전통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예수회가 발간하는 매체 ‘라 치빌타 카탈리카’는 교황과 53명의 예수회 신부들이 12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교황은 당시 신부들에게 교계에서 보수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 수술을 마친 후 일부는 내가 죽기를 바랐다”고 고백했다. 교황은 “그들은 콘클라베(교황 선출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임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무사해서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초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ABC는 교황의 발언이 그간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오랜 기간 비판해 온 보수파에 대한 입장이자 설명했다. 교황은 “나에 대해 함담을 하는 사제들로 인해 때로는 참을성을 잃기도 한다”며 “특히 그들이 진실한 대화 없이 판단을 내릴 때 그렇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머스크, ‘대립각’ 바이든에 “아직 자고 있어서” 조롱 “우주관광 성과 왜 언급 않나” 트위터 발언에 공개 저격

과거 트럼프 “슬리피 조” 화법 빌려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스페이스X의 우주 관광 성공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한 트위터 이용자의 발언에 “아직 자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 CEO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4명의 비행사를 태우고 3일간의 궤도 임무를 마친 후 18일 복귀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NN은 머스크 CEO의 발언이 과거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고 불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롱을 반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프닝은 최근 머스크 CEO와 바이든 대통령 간 관계가 꺾여온 상황에서 나온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전미자동차노조(UAW)에 가입한 기업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당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테슬라는 초대하지 않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성공평가정책국장 조선학 △국립전파연구원장 서성일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장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꽃마음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김경만 ◇국장급 파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추진단장 이석래 ◇국장급 전보 △전파정책국장 최우혁 ◇과장급 전보 △네트워킹정책과장 최성준 △디지털협력담당관 엄지현 △디지털방송정책과장 박지현 △정보

통신산업정책과장 김민표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준모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동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이용안전과장 김용미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장 권은정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 배영식 ◆행정안전부 ◇국장급 △재난관리정책관 최명규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임현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덕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통상법무정책관 윤창현 ◇과장급 전보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정석진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전남지

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환궁 ◇과장급 전보 △강원지청장 이한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김인 ◇부이사관 승진 △기획담당관 한성수 △기술정책과장 방현하 △도로투자지원과장 오원만 ◆해양수산부 ◇실·국장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경규 △정책기획관 홍래형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팀장 윤현철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이동욱 ◆조달청 ◇과장급 전보 △국방조달지

원과장 양영호 △정보기술계약과장 김우환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이호주 ◆문화재청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홍창남 △안전기준과장 이재원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박수철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임명 △교통안전본부장 김보현 ◆한국부동산원 △감사 민지홍 ◆한겨레 △대기자 박천수 △제작기술부장 최영근 △전국립 수도권데스크 김기성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사장 최기억 △전무이사 안수훈

자본시장 속으로



박 동 흠 회계사

수주산업은 당해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다 올해 수주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지표이고 수주액 역시 미래 손익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주 이후에 공사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손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일 공모가액의 85%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무리했고 단숨에 조선 대장주로 등극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우선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연초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2021년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을 88억8800만 달러, 약 10조5000억 원어치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20년 목표였던 73억2000만 달러보다 약 21% 증가한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1월 4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사)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2021년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을 88억8800만 달러, 약 10조5000억 원어치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2020년 목표였던 73억2000만 달러보다 약 21% 증가한 것이다.

다만, 2020년 회사의 실제 수주 총액은 53억900만 달러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에 최선을 다했겠지만 항상 여러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 차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사의 목표 수주액이 실제 결과보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수주가 발생되면 그 사실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알린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5일 한국조선해양이 올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사항을 보면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5940억 원에 수주했고 현대중공업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공시사항들을 모아서 집계하면 2021년 8월까지 123억3100만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 즉, 8개월만에 목표수주액을 39%, 34억4300만 달러 초과했다. 이런 사항은 현대중공업 상장일인 9월 17일에 공시한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사)'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즉, 투자자

는 수주할 때마다 올라오는 단일판매·공급 계약체결 공시를 집계하거나 한 달에 한번 올라오는 영업(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검토하면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수주액은 그 해의 매출액으로 전액 인식되지 않는다. 장기간 공사를 해야 하므로 수익 또한 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2021년 1월에 선사와 LPG운반선 건조 관련 공사를 1200억 원에 체결했고 2023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매년 400억 원씩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는 공사비 10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 예정이고 200억 원의 마진을 남길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공사비는 첫 해에 50%, 다음해에 30%, 마지막해에 20%씩 투입될 것이라면 회사의 첫 해 매출액은 600억 원(1200억 원(수주액) × 50%(공사진행률))이 된다. 수익은 임금 기준이 아닌 공사 진행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수주산업은 당해 매출액이 얼마인지보다 올해 수주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지표이고 수주액 역시 미래 손익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주 이후에 공사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손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조선주가 조정받는 이유도 결국 매출액의 6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특히 후판 가격이 상반기에 5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수주 대박을 내고 있지만 반기까지 영업적자를 보인 것도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반대로 말하면 향후 수주할 때는 상승된 후판 가격이 반영된 견적 기준으로 일감을 따 올 것이기 때문에 적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많이 수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익 악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가 지금의 손익보다 앞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투자성패도 여기서 갈릴 것이다.

대방로



권 상 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국내 대다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이다.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ESG위원회는 지금도 신설되고 있으며, 9월 현재 10대 그룹 상장사 100곳 중 68곳이 사내에 ESG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도 ESG 중심의 투자, ESG 중심의 경영관리 방식이 거론될 정도이다.

ESG 열풍이 국내 재계의 화두가 된 이유는 수많은 언론과 보고서를 통해 언급된 바 있어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역할에서 기업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고, 투명한 이사회 구조와 감사위원회 구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대변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업에서 ESG의 필요성이 거론되자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ESG 경영,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ESG와 기업 성과의 인과관계 검증 등 ESG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다양한 결과가 제공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영전략 및 재무회계 연구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결론은 ESG 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신뢰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내 최대 이슈가 된 ESG의 중요성이 1년 가까이 부각된 반면 실제 ESG와 관련하여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실행 방안 또는 실천적 행동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재계에 사회적 책임(CSR) 열풍이 일어 사회적 책임 부서가 민간, 공공 조직을 가리지 않고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주도한 공유가치 창출(CSV)은 또 다시 국내에 사회적 가치의 화두를 몰고 와 CSV 부서, CSV 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10년마다 CSR, CSV, ESG 등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트렌드가 창출되었고 기업도 여기에 발맞추어 그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기업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다수의 기업이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장 대부분은 ESG 경험이나 경력과 무관한 교수, 법조인, 관료, 언론인이 맡고 있다.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실천적으로 실행한 인물이 위원장이 되어 기업의 ESG 방향성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 경험과 경력이 무관한 인물이 ESG를 주도한다면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CSR, CSV와 관련된 기존 위원회도 기업 내부에서 유명무실한 역할에 그친 선례도 있다.

그러므로 ESG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위원회를 신중히 그리고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투명하게 ESG의 실천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인물을 공개선발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학습을 통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ESG 지표를 개

발해야 한다. 현재의 지표는 기술집약적 기업에 유리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과 유통업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불균형한 지표로 인해 미국 금융계의 펀드매니저들이 기업의 ESG 정보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기업, 2030년까지 거래소의 모든 기업은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수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능동적으로 ESG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방향성을 수립, 실천적 결과를 내놓을 시점이다. 기업의 브랜드 홍보 성격이 강한 ESG에서 내실 있는 ESG로 전환해야 한다.

카카오가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이유도 ESG와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결과로 입증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은 구호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내년 이맘때 더 많은 기업의 실천 사례가 회자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도 지속가능성의 첫걸음을 비로소 뒀 수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제임스 밴 플리트 명언 "나는 자기 스스로 일에 높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관리자로서 성공하는 경우를 결코 보지 못했다."

미국의 군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한 그는 발사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퇴역 후에는 한미재단(韓美財團) 총재를 지내며 한국 재민 및 문화사업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1951년 4월 미 제8군 사령관으로 6·25전쟁에도 참전한 그는 한국 육군사관학교 재건에 힘썼다. 그는 오 늘 숨졌다. 1892~1992.

☆ 고사성어 / 주경야송(晝耕夜誦)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다'라는 뜻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유한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은 같은 뜻. 위서(魏書) 최광전(崔光傳)이 원전이다. 최광의 본명은 효백(孝百), 광(光)은 효문제(孝文帝)가 내린 이름이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학문을 좋아하여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암송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글을 필사해주는 일을 하여 부모를 봉양하였다.[家貧好學 晝耕夜誦, 備書以養父母].'

☆ 시사상식 / 타임 마케팅 (time marketing)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저가 마케팅 방식을 뜻하는 말이다. 주말에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거나 할인판매전을 열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상추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인 한자어 생채(生菜)에서 왔다.

☆ 유머 / 아들의 요청 초등 2학년 아들이 천 원을 더 달라고 하자 엄마가 없다고 했다. 아들이 천 원짜리를 뚫어지게 보다가 "이 번호로 퇴계 이황 선생님께 하나 더 주라고 전화해 줘요!"라고 애걸했다. 엄마가 놀라서 보니 정말 번호가 있다. 1501-1570.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아, 그거요? 내긴 냈는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사업 자체가 전문가랄 게 아직 없어서."

얼마 전 한 에너지 업체가 진행 중인 '수소 경력사원 채용'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많아야 한 명 정도 뽑을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투에서는 특별한 기대감이 묻어나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몇 차례 채용 기한을 연장했고, 여전히 채용 공고가 걸려 있다.

이런 애매한 분위기는 수소 사업에 대해 물어볼 대상을 찾을 때에도 체감한다. 수소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공언한 업체들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한 명이 대표적으로 답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거절당하기 일쑤다.

기자수첩



김 버 리 산업부/kimstar1215@

수소협약체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한 수소 사업이지만, 현재 모습은 어떤 면에서 무기력하다. 갖춰진 것이 거의 없는 시장에 정부를 비롯한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쏟고 조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을까. 이는 반대로 보면, 미래 사회에서 수소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는 반증으로 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세계 수소 시장이 12조 달러(약 1경4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수소 사회 비전을 공개하고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수소가 에너지 산업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과 맞물려 있는 것도 특징이다. 수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반하고 활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파생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다. 사업의 주체인 기업들과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사이에 엇박자가 생긴다면 차질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최근 현대차·SK·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기업협약체 'Korea H2 Business Summit'의 출범은 고무적이다. 협약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자의 소통 창구 역할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수소 사회'가 지금의 새싹에서 울창한 숲으로 번성하는 지름길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철학자에게 행복을 묻다

당신은 내게 행복하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다 손에 쥐는 게 행복인가? 일상의 안녕들이 지속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안락한 삶의 조건이 될 수는 있을 테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세계는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 따위로 얼룩져 있다. 도시에서는 날마다 갖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안녕과 생명을 위협한다. 세계 도처에서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의 미래는 암담하다. 또한 인간은 늙고 병들며, 기력은 쇠잔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간다. 그런 조건에서 저 혼자만 희희낙락하며 살 수는 없다.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은 그 총량을 비교해 보면 누구에게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누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다른 누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행복은 개별자의 현실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신의학의 영역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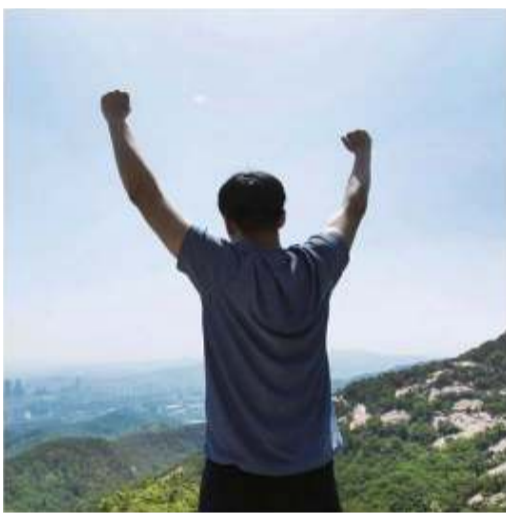
평온한 가을 아침이다. 어젯밤 공중에 떠 있던 달은 사라졌다. 간밤에는 잠을 잘 잤다. 편두통은 없고, 팔과 다리는 멀쩡하다. 아침식사는 조출하게 마쳤다.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발 아래서 몸을 둥글게 만 채로 잠들고,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보는 풍경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 햇빛이 그 나무를 축복하고 있듯이 감싼다. 햇빛이 투과하는 나뭇잎은 아주 밝은 연두색이다. 나뭇잎은 투명하고 환한 빛으로 반짝인다. 내 안에 있는 근심의 부피가 그리 크지 않아 견딜 만할 때 나는 낙관적이 되어 세상은 대체로 살 만하다고 느낀다.

눈[雪]은 저 멀리 있고, 겨울 한파가 닥치려면 멀었다. 겨울이 온다 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는 추위를 피할 집이 있고, 두툼한 스웨터와 발을 감싸는 보온양말도 몇 켤레나 있다. 지금 이 철나, 나는 암석과 바다와 숲이 있는 이 지구에 살아 있다. 어떤 비판도 난폭함도 나를 삼킬 수 없음을 안도한다. 나는 안전하고 낙관적이며 편안하다. 이것이 내 곁에는 잠든 고양이와 있고, 환한 햇빛에 물든 나무가 있는 가을 아침의 기분이다. 나는 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떠도는 난민들이 있고, "지구엔 피살자들의 스크린이다"라고 말하는 시인이 있음을!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시와 철학에 빠진 것도 그 물음과 이어지는 바가 있다. 나는 나름대로 소박한 대답을 얻었다. 인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존재다. 월 뉴턴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물리학자에게 아이는 분자, 원자, 전자, 양자의 집합일 뿐이다. 생리학자에게 아이는 근육, 뼈, 신경의 불안정한 결합체다. 의사에게 아이는 붉게 달아오른 질병과 통증의 덩어리다. 심리학자에게는 유전과 환경의 무력한 수신자

이며 허기와 사랑으로 통제 가능한 조건 반응의 집합체다. 이 희한한 유기체가 갖게 될 거의 모든 생각은 망상일 것이며 거의 모든 인식은 편견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도 안다.

나는 윌트 휘트먼의 시를 읽고, 집과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단골로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아도니스 시집에서 "달[月]은 창밖으로 내 던져지는 껍질이고, 태양은 전기 오렌지다"와 같은 시구를 읽을 때 놀란다. 가끔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노동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돈을 번다. 나는 세금과 국민의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나는 실내에서 남천나무를 비롯한 식물 몇 그루를 기르고, 타인의 안녕과 기쁨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분의 힘이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전 세계를 덮친



나는 신체, 몸 그 자체다. 우리는 신체에 굽이치는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 있음의 감각은 생생해진다. 우리는 신체로써 느낌과 감정들, 미묘하게 변화하는 기분을 감지한다. 우리의 행복은 신체에 여분의 힘이 있을 때다.

바이러스 전염병을 걱정하고, 갑자기 치솟은 집값이 폭락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내 혈압은 정상이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다.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꽤 여러 달 동안 집중해서 읽고 있다. 나는 니체가 말하는 "그대의 사상과 감수성 뒤에 강력한 지배자가 있다. 그대는 모르는 그 현자의 이름은 '본래의 나'다. 그대의 육체 안에 그가 살고 있다. 그대의 육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와 같은 생각에 대체로 동의한다. 나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사유의 연장선에서 "실제로 정신이 가장 많은 것은 위(胃)다"라는 니체가 쓴 구절을 읽을 때 놀라고 감탄한다.

나, 혹은 자아라는 것도 신체가 보여주는 실물로서의 구체성과 확실성에 견준다면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 나, 유일성의 존재 근거라고 받아들여지는 이것은 일종의 문법적 가설일 뿐이다. 과연 자아는 내 개별적 존재의 토대인가? 그것은 실상 잡다한 작용들의 집합이 아닐까? 아니스 폰 스타티니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안

에 본래적이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의 장백한 반영일 뿐이다." 니체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삶의 생성적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신체다! '신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철학적 물음이다. 질 들뢰즈는 니체 철학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힘의 영역, 다수의 힘들이 서로 투쟁하는, 영양을 제공하는 환경", "환원될 수 없는 다수의 힘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수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신체는 삶의 의지, 그리고 활동의 근거이자 삶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나는 질 들뢰즈에 동의한다. 신체는 항상 '현실적인 것' (생물학적, 사회적, 정치적 것들)을 생산해낸다. 그것 없이는 어떤 삶도 불가능하다. 차라리 삶은 모든 힘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니체는 몸의 철학자다. 니체는 온몸이 병으로 뒤덮인 환자로 살면서 몸이 생의 주체라는 인식을 굳히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교한 사유를 제 철학의 몸통으로 삼게 되었다. 신체는 이성이나 영혼에 부속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몸은 대지와 인간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깨어난 자, 깨어진 자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고.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양성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족 때이자 목자이다. 형제여, 네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체의 도구, 이렇다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 니체는 서구 사상사에서 이성의 부속물로 전락한 신체를 복원시키며, 그 의미를 새롭게 새긴다. 신체가 이성의 도구가 아니라 이성이 신체의 도구라고!

나는 신체, 몸 그 자체다. 우리는 신체에 굽이치는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 있음의 감각은 생생해진다. 우리는 신체로써 느낌과 감정들, 미묘하게 변화하는 기분을 감지한다. 우리의 행복은 신체에 여분의 힘이 있을 때다. 숨 쉬고, 먹고, 잠 자고, 움직일 때 우리 신체의 필요보다 조금 더 넘치는 힘, 여분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 여분의 힘을 활력의 뿌리로 삼으며 그 상태를 건강이라고 부른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그리고 이어서 쓴다. "나쁜 것은 무엇인가? -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갈라지는 것은 힘의 느낌과 증대, 그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기 안의 힘이 증대한다는 느낌은 좋은 삶의 근거다. 반면 약함, 기력의 쇠진은 나쁜 삶에 빨려 들어가는 조건이다. 약해지는 것은 힘의 고갈이고 이것은 곧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 안에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속에서 행복을 실감한다고 말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 힘이 증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니체는 신체를 경멸하여 갈보는 자들을 뒤집는다. 오늘 아침 내 신체의 건강함이 행복의 기초적 토대임을 나는 느낀다.

시설

중국 헝다 파산 리스크, 강 건너 불 아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 그룹의 파산 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가시화할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의 민간 부동산 기업이다.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한 당국의 대출규제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 오래다. 헝다의 부채 규모는 6월 말 기준 1조9700억 위안(약 3038억 달러)을 넘고, 23일 채권이자 8350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헝다는 일단 그 일부를 갚겠다고 했지만,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 해소와 거리가 멀다.

헝다는 이미 자국 안팎의 많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폴트를 피하기 어렵는데 변수가 많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떠받쳐온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 대형 국유은행들에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해 금융시스템을 흔들고, 부동산 개발업계 전체를 바닥으로 내몰면서 세계 경제의 심각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 우려가 크다.

글로벌 증시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증시가 지난 며칠 폭락세를 거듭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큰 폭 떨어졌고, 22일 불안심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반등에 실패했다. 홍콩恒生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일본 닛케이지수 등도 급락했다. 헝다의 파산이 중국 금융시장

의 위험을 키워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헝다의 유동성 문제가 파산에 이른다 해도, 과거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다. 주요 외신들과 투자은행들은 중국발 금융위기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이 헝다의 빛을 떠안은 국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방지하지 않고, 강력한 개입과 통제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는 사태로 진행되는 것은 막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다.

그럼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 헝다의 파산을 막는다 해도 일시적이고, 막대한 부채를 키워 경기를 띄운 중국 경제가 부동산경기 추락으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파장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헝다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가져올 후폭풍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급한 불을 끈다 해도, 글로벌 시장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냐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다. 헝다의 파산 위기,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 증폭은 작은 변수에 취약한 우리 금융과 경제의 불안감을 키운다.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마음상담소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라진 풍경이 하나 있다. 그것은 중장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다. 예전에는 여기저기 술판이 벌어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쓰러져 있거나 취객들 간 시비가 붙어 다투는 모습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장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술판이 보이지 않는다. 술판이 사라진 것은 반가워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술까지 끊은 것은 아니다. 장소만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들이 많아졌다.

박모 씨와 조모 씨가 그중 하나다. 60대 후반인 박모 씨는 막걸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오래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간경화, 고혈압 등 신체질환으로 먹는 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는 날부터 돈이 떨어지는 날까지 술에 취해 산다. 건강을 생각해 술은 그만 마시고 식사를 하라고 하면 막걸리가 밥이란다. 70대 중반인 조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어 매일 저녁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고 서너 병을 마시는 날도 허다하다. 분명 알코올 의존을 넘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자신은 중독은 아니라며 부정한다.

인터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분들처럼 술에 의존해 사는 중장년 남성들이 너무 많다. 실직, 사업 실패 등 저마다의 사정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후 경제적 스트

레스, 대인관계 축소, 가족 간의 갈등, 이혼 등으로 인한 고독감, 신체적 기능 약화까지 다양한 문제와 부딪치면서 절망적인 현실이 괴로워서,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한다. 이들은 맹정신으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잠이 안 와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술을 찾지만 결국은 현실도피이다. 술을 마신다고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거나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술이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들이 감정을 왜곡하거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제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라고 말한다.

술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 문제를 자각하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박모 씨도, 조모 씨도 금주를 권하면 "나는 문제없다, 이 정도는 괜찮다"며 현실을 부정한다. 설령 금주를 시도한다 해도 중도 포기하고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 상담자를 맥빠지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인 폐해 때문이다. 한두 잔 매일 마시는 술이 잠시 잠깐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우울감이나 불안한 감정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야기한다. 실제로 자살 시도자나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절망적인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술은 해결책이나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가전, 작품이 된다



LG SIGNATURE _ 올레드 TV, 세탁기, 가습·공기청정기, 상냉장고, 와인셀러, 열음장수기, 냉장고, 에어컨

*특정 이미지 상의 사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초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